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화복과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 1:21)

창간호인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천국의 꿈나무들을 위한 큰 선물

장소를 옮기고 새롭게 단장된 영아부실과 탁아부실

아기 엄마와 영아들을 배려한 영아부실

그동안 제1교육관 1층에 있던 영아부 예배실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회는 '천국일꾼양성'이라는 큰 깃발 아래서 영아부실의 공간 확보를 위해 고심하다가 마침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교관 1층에 있던 교구위원회 사무실을 교육관 2층으로 이동시키고, 대신 선교관 1층에 영아부 전용 공간을 마련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은 창문을 통해 따사로운 햇빛이 늘 쏟아져 들어오는 넓은 예배실과, 모유를 먹이는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 유아차를 가지런히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용하고 깨끗한 교사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어지고 예쁘게 단장된 영아부실! 천국의 꿈나무들을 위한 이 선물이 영아부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신 시설로 새롭게 오픈하는 탁아부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신령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탁아부! 2005년을 앞두고 탁아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현어린이집 시설의 일부분을 탁아부실로 활용하였지만, 오늘부터는 교육관 110호실(이전 영아부실)에 탁아부 전용공간을 마련하였고, 내부 시설도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었으며, 최첨단 대형 영상시설을 설치하여 교사들과 부모들이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집회를 실시간으로 보며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금요일(7일)부터는 매주 금요일회 시간에도 탁아부를 운영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넓어진 공간, 교사와 부모들을 세심하게 배려한 탁아부실에서 천국일꾼들이 무뎠던 마음을 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북방 열음산과 대양산호성까지 나아갈 복음의 한대

2005년도 각 위원회 일꾼명단 및
서리집사 권철 명단발표 (본지 5면에서 20면까지)

2005년, 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복음의 길을 더 힘차게 뛰어가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위원회의 일꾼과 서리집사 및 권철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공급받아야 할 일꾼으로서 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요 15:5). 또한 한 몸의 각 지체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겸손히 일할 때 서로의 몸 된 친구에게 자라며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이런 한 몸의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2005년도 선교설령회

일시: 오늘(12일), 찬양예배 후 / 장소: 배다니홀 / 대상: 교역자·당회원 전원

◆ 특별제직회

일시: 다음주(19일), 찬양예배 후 / 장소: 본당
간 인: 예절심 심의 / 대상: 총현교회 제직

*오늘, 2005년도 제6차 학습세례자교과 개강 (본지 8면 참조)

달고 오묘한 그림자(금요회)-천국 복음

제9장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2)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준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 후에는 나중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천국을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니"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다 때려쳐 불바람 왕 노릇 하시리라. 뭇 나중이 멸망 받을 원수는 사방이니라(고전 15:24-26).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천국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불바람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통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돌 때까지"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뭇 나중이 멸망 받을 원수는 사방이다(롬 6:23). 이처럼 사방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그리고 사방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사단을 멸망시켜야 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방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 하시며"(히 2:14). 천국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방을 정복하셨다는 사방의 소식이며, 이 승리는 사방과 음부도 불바람 던지우신 둘째 사방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골 2:14).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이미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방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여기서 사방을 패하시고 복음은 사방을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방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음부로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다(고전 15:24, 26 참조). 그러므로 사방을 멸하는 때는 두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방의 마귀와 멸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이미 사방은 정복되었고 패해졌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기본 소식이다. 이 복음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복음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다. 천국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죽음은 어두운 인간들을 향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정복자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사방이 이미 정복되었다고 선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앞에서 사방이 모든 힘을 잃고 무력해졌다고 선포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을 것이고 천원육국이 끝나면 사단은 영원히 불에서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히 2:14-15, 고전 15:24, 26 참조). 물론 사단은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

장하여 신자들을 유혹한다(벧전 5:8, 고후 11:14). 하지만 사단의 권세와 주권은 이미 무너졌으며 사단의 궁극적인 멸망 역시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을 풀어주심으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입증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사단이 정복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마귀의 공포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놀음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취하셨는가? 우리는 죽음과 마찬가지로 죄가 이 세상에 관한다는 인정을 해야 한다. 신문 지상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죄의 모습을, 죄가 어떻게 판해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보고 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아무런 크게 역사하고 있을지라도, 죄 역시 사방이나 사단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복을 당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 버리시고 세상에 나타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까지 저주 고난을 받았으며 야할 것이라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 버리시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6). 따라서 죄의 권세도 이미 깨어졌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 하려 함이니라"(롬 6:6). 여기에서도 '멸하여'라는 단어는 그 권세를 무너뜨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다. 그렇다. 죄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은 본방의 장면에 속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방은 이미 멸망을 받았고(딤후 1:10), 사단도 정복을 당하였으며(히 2:14), 죄의 몸도 이미 멸망을 받았던(롬 6: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를 만에 부활하셨으니 말미암아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과거에 속한 일이다. 물론 죄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으나 그 세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 인간은 죄 앞에서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죄의 영역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의 권세가 이 세대로 오므로 침범하여 들어왔고, 이 권세는 죄의 사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 복음이야말로 소망의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방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이다. 이 복음은 약속일과 동시에 체현하는 일이며, 이미 체험하고 있는 이 사실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곧 그 장면에 행하실 일을 모음해 두고 있다. 바로 이 소식이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하여 들고 나아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이다. (계속)

Prince of Peace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In talking about the birth of Christ in Bethlehem, Isaiah introduces one of His many names as the Prince of Peace. The Bible gives Him other princely names, like the Prince of life and the Prince of the Kings of the earth (cf. Acts 3:16; Rv. 1:5). As the Prince of Peace, He makes it possible for humans to have peace with God, to possess the peace of God, and for there to be peace on earth.

Many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seek to make peace with God. These religious individuals seriously think about how they can have peace with Him. Some try to get peace through religious rituals or their good works. There are churches that actually teach these principles to their members, telling them that if they say or do certain things then they will receive blessings and have peace with God. As such, many people try to make peace with God with their money, possessions, or time. Listen my friends, I am telling you that there is a big, very, very big gap between humans, who are all sinners and destined to Hell, and our Holy God. No human efforts can fill this huge void, which is why God provided the way. The only bridge between God and man is the cross, which is why we desperately need the Prince of Peace. He paid for our debts of sin,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 53:5-6). He broke down all the barriers that separate man from God,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made both groups (Jews and Gentile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And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Eph. 2:14, 17). He made peace with everything, “For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I say,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Col. 1:19-20). This wonderful peace was born in a manger.

Many Christians make peace with God, but miss the peace of God. The peace of God is positional and unchanging. It is supernatural, not psychological, and totally depends on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If you have close relations, you will have His peace. The path of peace is free of worrie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 4:6-7). Too many believers forget to pray about everything, and ignore thanking Him

unceasingly. They lose the blessing of the peace of God because they do not think about Him; they do not praise Him, “Finally, brethren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of good repute, if there is any excellence and if anything worthy of praise, dwell on these things” (Phil. 4:8). We need the peace of God. The Messiah, Prince of Peace, came so that we could receive all these blessings. We must get them, so that the result will be that we have the peace of God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This wonderful peace is presently available.

When the second coming of Jesus happens, there will be peace on earth. Isaiah 2:4 says, “And He will judge between the nations, and will render decisions for many peoples; and they will hammer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wi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and never again will they learn war.” The angels declare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k. 2:14). In this special peace that awaits the Kingdom, there will be no more work, and even peace among animals, “And the wolf wi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the calf and the young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boy will lead them. Also the cow and the bear will graze, their young wi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ox. The nursing child will play by the hole of the cobra, and the weaned child will put his hand on the viper’s den” (Is. 11:6-8). Instead of violence, there will be total peace, “They will not hurt 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 11:9). There will also be peace in nature, “The wilderness and the desert will be glad, and the Arabah wi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it will blossom profusely and rejoice with rejoicing and shout of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majesty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majesty of our God... The scorched land will become a pool and the thirsty ground springs of water; in the haunt of jackals, its resting place, grass becomes reeds and rushes” (Is. 35:1-2, 7). This wonderful peace, the best peace, is yet to come.

Do you long for peace? Jesus Christ will bring peace to your troubled heart, if you truly believe He is the Prince of Peace. Someday He will bring peace to this troubled world.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so many people are excited about other things, like shopping for gifts, visiting family and friends, and eating food, but their hearts are empty of peace. Christmas means the Messiah has come, and His name is Prince of Peace! 🎄

【다음 주일 설교】

평강의 왕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김성관 목사

이사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있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사하는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주'(행 3:15 참조)라든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제 1:5) 등입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평화가 되게 하십니다.

심자가를 통한 화평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을 수 있겠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려고 실제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말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속아서 자기들의 돈이나 재산이나 시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자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크고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거대한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친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는 오직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평강의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엡 2:14, 17). 예수님은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을 맺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20). 이 놀라운 평강이 말과 구에 나셨습니까.

기도와 감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평강의 길에는 격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일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고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청결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천사들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리라”(눅 2:14).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임하게 될 이 특별한 평강 안에는 더 이상 수고나 고통이 없으며 심지어는 동물들 사이에도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양과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도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첫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첫 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6-8). 모든 폭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평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자연 세계 안에도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향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적이 될 것이며 사람의 늙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사 35:1-2, 7). 완전한 이 평강!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예수님은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 구입이나 친지 방문이나 외식 등 전혀 영동한 일에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메시시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메시시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 40:3-5)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평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와 임이 말씀하셨느니라”(사 40:3-5).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루어진 놀라운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다음에서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

리인가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사 40:6-7).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신들이 홀로해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자.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사 40:4).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모든 사람들은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라(요 4:29).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음으로써 그 여인의 골짜기는 메워졌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되었다. 문둥병자 열 명을 생각해 보라(눅 17:11-14). 예수님을 만났음으로써 그들의 골짜기가 메워졌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골짜기는 메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라. 항상 마음이 불탄했던 세리 사개요 역시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교만이 낮아진다.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애굽계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면요 주께로 옵니다”(330장).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교만을 버릴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쌓일 경우, 우리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것이다(사 14:12-15).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히려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우리 자신의 자아와 공적을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자.

굵은 것이 곧아진다

우리 마음에는 굵은 것들이 많다. 간사한 것이 많다는 말이다. 도마의 마음은 의심 때문에 굵어져 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고 나서 도마의 굵은 것은 퍼졌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요 20:28). 참으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복음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굵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는 굵은 것들을 십자가로 퍼주신다. 사도 바울을 보라. 그는 핏박자로 살았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바울의 마음에 있던 굵은 것들이 퍼진 후에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따라 볼 때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십자가 형을 위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십시오”(요 23:42). 죄인 중의 죄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마침내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대담한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이렇듯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면, 곧 십자가가 나타나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과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민 장
(권사, 4지회장)

본당에 들어설 때마다 제 마음을 정하게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본당 앞 벽면에 걸려 있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벽면에 걸려 있는 말씀이 아니요 제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저 같이 못나고 추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마치고 갔지도 못합니다. 이런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저 같이 미련한 죄인을 날마다 찾아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니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고백해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05년도 권사회 4지회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제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주님은 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 나 같이 미련하고 순이 지내는 종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셨을까? 주님은 내가 일어설길 바라셨으나 서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일을 맡기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깊은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두렵습니다. 제게 아픈과 같은 지체자를 주셔서 함께 협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체가 없어 두렵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체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피로 저를 사하셨으니, 비록 이 직분이 제게는 파본하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권사회를 위하여 맡기신 일은 주님의 계획이시니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주의 뜻이 승리하게 하소서. 제게 능력은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는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4지회 권사님들과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지회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권사님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며 늘 기뻐하며,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05년 한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며, 언제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전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5년도 서리집사 명단]

1교구

남집사

95-1661	강길원	91-224	김진경	4688	김갑식	1371	김대현
2787	김도현	89-598	김영종	90-293	김갑식	94-1925	김성택
89-979	김승규	97-562	김용석	87-443	김갑식	89-111	김정환
84-1051	김종민	85-348	김갑기	92-798	김갑식	2001-0289	김갑기
2004-0320	박영민	86-645	박희석	86-142	박복향	90-980	서영조
93-1054	서기철	93-1054	신문현	91-762	소양석	86-829	송웅욱
89-389	송현태	85-606	양근식	84-612	이상훈	350	이성재
99-935	이윤수	2000-0371	이인상	98-1288	이재관	89-816	이진수
199	이진수	89-696	이현재	3992	이병철	90-530	임형호
89-963	정영수	91-1134	정종문	88-706	전삼진	95-291	전승기
96-757	정영호	3120	정영호	80-623	정영환	2002-0092	정종욱
2851	조장선	4675	지영일	91-1231	최계열	96-124	최규태
94-1297	최승민	85-794	최준석	86-422	하남철	93-121	홍충현

(2005 연임)

95-1543	이광주	2003-0066	이재형	94-914	전주상	4675	지상혁
4675	지상훈						

여집사

91-1009	강 국	87-443	강종배	88-233	강준자	84-1116	고남빈
89-1463	고윤환	89-940	노경근	89-1111	권미애	241	권재진
89-399	김경성	85-348	김경희	88-643	김영숙	99-979	김영순
81-487	김영순	92-1174	김영희	89-1045	김영숙	82-59	김영희
2003-0001	김선진	94-1925	김수연	91-381	김갑식	94-1925	김기철
97-562	김영희	97-672	김영희	2000-0320	김갑기	499	김영희
89-994	김영희	85-150	김갑기	95-150	김갑기	91-311	김경배
89-34	김갑기	83-617	김갑기	84-617	김갑기	91-1231	김갑기
97-467	김형희	89-1421	김갑순	95-1543	김갑기	93-1020	남주목
93-293	문민선	96-1212	문민선	79-257	문복향	96-732	문복향
95-1417	박경희	99-291	박경희	90-259	박경희	94-1925	박경희
94-1297	박진영	94-585	박진영	88-1225	서재형	88-1053	신상훈
2002-0266	손은희	89-698	송윤진	89-1413	신동욱	91-966	신동자
2002-0344	송영희	93-1073	신선미	91-054	신선미	91-555	신선미
91-234	유영민	91-782	염영숙	92-103	오은진	91-1134	유영민
89-707	유영자	94-724	윤영숙	86-222	윤 정	86-126	윤지영
86-126	윤지영	95-124	윤지영	90-935	이은희	92-272	이영자
88-194	이국익	85-606	이영숙	95-232	이영희	87-531	이영희
86-1228	이수현	86-125	이영희	93-399	이영희	84-586	이영희
362	이영희	93-1054	이영희	91-1241	이영희	89-596	이영희
84-912	이영희	96-108	이영희	91	이영희	2000-0248	이영희
89-757	이영희	98-142	이영희	93-624	이영숙	85-335	이영희
86-422	임영미	80-623	이영희	92-179	임영희	87-533	신성향
87-81	전준숙	85-794	전준숙	93-121	전준숙	88-706	전준숙
84-612	정종희	87-59	정종희	92-798	정종희	81-272	조준희
95-44	조준희	91-946	조준희	86-222	조준희	90-940	조준희
84-406	최지영	89-120	최준희	83-694	최준희	91-288	최준희
2787	최준희	92-394	최지영	91-272	최준희	88-516	최준희
95-204	태일환	1050	홍상미	4675	홍인자		

(2005 연임)

92-1694	김재현	99-327	김화실	97-794	라은현	84-1104	박성희
2003-04-18 서정자	2001-0393				이원호	2002-0092	이원호
95-353	유영진	2002-0294	윤민정	2002-0348	이영희	93-1054	이영희
2003-0066	임태자	96-36	정종배	86-422	정선진	94-914	최준기
2000-0585	한사재						

2교구

남집사

91-1020	강갑식	84-1221	김진경	95-1316	김경록	79-230	김경
92-1562	김갑식	95-191	김갑기	90-318	김갑기	84-1084	김영태
87-10	김갑기	88-20	김갑기	87-268	김갑기	1300	김갑기
2000-0447	김갑기	93-1271	김갑기	2003-0295	김갑기	96-1113	김갑기
84-492	김갑기	86-637	김갑기	86-428	김갑기	92-614	류동원
93-1098	김갑기	2239	박성배	88-854	박성배	88-854	송기태
4992	신두태	91-764	신두태	88-818	신두태	96-739	신두태
84-233	양승길	88-905	이영숙	92-501	오종호	2003-0390	김갑기
95-680	양승길	91-377	문복향	2366	문복향	83-699	문복향
82-755	이영숙	91-179	이영숙	91-292	이영숙	96-486	이영숙
676	이영숙	89-840	이영숙	84-532	이영숙	92-1040	이영숙
82-744	이영숙	84-532	이영숙	87-352	이영숙	89-608	이영숙
85-820	이영숙	88-729	이영숙	89-71	정종민	81-914	정종민
685	정종민	93-2	정종민	98-949	정종민	92-87	조준희
84-40	조준희	89-465	조준희	81-845	최준희	87-331	최준희
2002-0286	최준희	89-446	한재명				

(2005 연임)

89-674	구세희	86-426	노경희				
--------	-----	--------	-----	--	--	--	--

2005년 일교 명단

여집사

89-1315	강태숙	91-179	고금진	90-478	고정순	97-61	김경희
92-178	김갑기	97-608	김갑기	98-122	김갑기	92-87	김갑기
97-902	김갑기	97-733	김갑기	93-676	김갑기	94-288	김갑기
96-368	김갑기	80-745	김갑기	84-492	김갑기	93-1271	김갑기
1901	김갑기	95-191	김갑기	4835	김갑기	87-268	김갑기
92-977	김갑기	86-428	김갑기	85-735	김갑기	92-1413	김갑기
91-292	김갑기	93-2	김갑기	90-586	김갑기	2000-0291	김갑기
94-1974	김갑기	4814	김갑기	95-1464	김갑기	82-744	김갑기
82-755	김갑기	91-316	김갑기	96-468	김갑기	88-627	김갑기
94-282	김갑기	2003-0140	김갑기	90-822	김갑기	91-981	김갑기
95-111	남성애	92-1727	노경희	79-94	노경희	88-64	류동원
92-977	문복향	84-1060	문복향	89-608	문 복	92-1582	민복선
92-614	박경희	95-191	박경희	92-1291	박복향	1866	박복향
89-190	박복향	86-449	박복향	79-526	박복향	89-178	박복향
93-945	박복향	87-85	박복향	88-905	박복향	88-653	박복향
89-1081	신은숙	90-608	신은숙	91-493	신은숙	2002-0286	신은숙
90-1013	신은숙	79-230	신은숙	84-686	신은숙	88-771	신은숙
1908	안연진	295	안연진	96-1113	안연진	2363	안연진
4007	이영진	2000-0457	이영진	89-71	이영진	81-792	이영진
89-719	오영숙	93-117	오영숙	91-377	오영숙	91-275	오영숙
96-739	유영진	88-818	유영숙	94-846	유영숙	88-660	유영숙
99-247	유영진	97-435	이영진	87-331	이영진	89-840	이영진
93-116	이수현	90-392	이수현	92-501	이영진	81-914	이영진
84-1173	이영희	4974	이영숙	84-233	이영희	84-1221	이영희
95-680	이영숙	90-318	이영희	91-703	이영희	95-1398	이영숙
85-15	정종희	676	정종희	90-223	정종향	91-692	정종자
87-10	정종희	95-1762	정종희	91-764	정종희	91-703	정종희
92-87	조준희	4160	조준희	93-337	조준희	92-1040	조준희
91-383	조준희	98-940	조준희	86-674	조준희	87-352	조준희
89-1020	김갑기	86-538	김갑기	96-1217	최영희	83-669	최영희
91-729	최지영	80-848	최태빈	95-1783	한재성	1590	한재성
2239	한재성	85-754	한재성	84-1084	한재성		

(2005 연임)

89-475	김태숙	88-837	임재준	93-731	전은숙	95-155	전은숙
2000-0364	조준희	2000-0304	지인희	96-577	최은아		

3교구

93-617	강국석	97-603	고경호	79-336	권석정	99-518	권순록
89-825	권순록	96-1178	권학민	91-1201	김갑기	88-587	김갑기
96-635	김갑기	93-142	김갑기	87-375	김갑기	97-114	김갑기
82-290	김갑기	84-232	김갑기	89-572	김갑기	93-329	김갑기
97-399	김갑기	96-754	김갑기	95-639	김갑기	2777	남기철
94-1163	김갑기	86-95	박성배	89-1329	박성배	88-678	박성배
93-946	김갑기	82-601	박성배	92-1256	신 종	96-4	신종희
89-1229	신은숙	97-175	안연진	95-1558	유영숙	90-55	유영숙
82-619	이영숙	90-330	이도현	89-968	이도현	87-682	이도현
87-610	이영숙	92-735	이영숙	89-968	이영숙	94-626	이영숙
81-126	이영숙	92-1208	이영숙	91-373	이영숙	81-126	이영숙
2842	이영숙	85-331	김갑기	2002-0215	장석두	95-655	장석두
89-1520	조준희	92-560	지인희	89-940	최준희	94-280	최준희
95-190	최준희	2002-0291	최준희	86-640	최준희	91-597	최준희
94-369	최준희	2966	최준희	83-62	최준희	88-1183	최준희

(2005 연임)

99-155	김종훈	88-672	이성민	2000-0591	이영숙		
--------	-----	--------	-----	-----------	-----	--	--

여집사

84-651	김갑기	89-90	김영숙	89-1329	김갑기	97-806	김갑기
93-1012	김갑기	87-599	김갑기	86-553	김갑기	86-178	고은숙
82-648	구명숙	96-694	김갑기	82-290	김갑기	91-820	김갑기
95-1166	김갑기	86-45	김갑기	4285	김갑기	85-978	김갑기
92-1029	김갑기	88-1183	김갑기	2966	김갑기	89-591	김갑기
93-598	김갑기	92-795	김갑기	90-915	김갑기	97-603	김갑기
96-690	김갑기	90-438	김갑기	93-142	김갑기	90-380	김갑기
85-531	김갑기	91-136	김갑기	87-682	김갑기	94-230	김갑기
99-920	남은숙	91-469	류동원	94-573	박성배	90-608	박성배
2000-0389	박성배	95-788	박성배	92-1208	박성배	83-526	박성배
94-626	박성배	86-776	박성배	87-720	김갑기	93-283	박성배
93-301	박성배	96-327	박성배	2002-0215	김갑기	94-369	박성배
91-456	박성배	96-1178	박성배	92-1088	사정숙	99-518	사정숙
96-1015	신재영	97-114	신재영	89-1144	신재영	81-145	신재영
198	송기태	99-198	송기태	99-299	송기태	198	송기태
83-415	송기태	97-797	안연진	99-1054	안연진	98-226	안연진
94-334	안연진	93-697	오영숙	88-987	오영숙	85-313	유은희
97-369	유은희	1868	유은희	2842	유은희	86-360	유은희
86-635	유은희	87-375	이영희	88-620	이영희	89-1556	이영희
5074	이영희	84-230	이영희	94-280	이영희	95-74	이영희
92-943	이영희	80-118	이영희	95-1786	이영희	93-1759	이영희
93-329	이영희	88-507	이영희	85-639	이영희	79-100	이영희
91-973	이영희	94-1955	이영희	90-532	이영희	89-1422	이영희

97-336	이영희	93-617	이 화	99-155	이화민	97-417	이화지
94-1342	임갑숙	84-232	임갑숙	2001-0271	임갑숙	89-1229	임갑숙

2005년 입문 명단

95-100	이명준	89-228	이부경	97-409	이미연	94-1957	이미주
95-67	이미현	91-1010	이부호	88-252	이수연	92-1380	이민숙
86-187	이영준	94-1000	이복자	92-783	이영희	90-947	이원정
91-842	이유미	91-164	이문경	88-1096	이은숙	91-753	이재훈
95-1740	이정	87-3	이영숙	94-136	이재희	95-301	이주영
91-500	이창준	94-1344	이명희	95-253	이현미	91-413	이현실
90-1094	이현숙	91-693	이혜주	975	이효순	93-411	임광자
98-1122	임영훈	89-533	임신영	92-751	정광국	93-266	정재교
98-1004	임수진	88-291	정진숙	92-1370	정경숙	95-499	전동여
95-613	정복식	94-877	정경진	91-1197	정경진	92-1339	전순자
90-912	전태숙	92-1254	전순숙	82-52	조승미	99-951	조연숙
87-249	조영민	91-618	조영희	97-770	조은숙	95-154	조은순
92-415	조은영	2001-0105	조미아	92-210	조민선	88-933	주영희
87-844	전영순	2001-0334	전영훈	95-505	최경자	95-787	최미룡
91-163	최복관	2674	최순복	94-287	최영숙	90-164	최유경
2801	하복록	95-638	하지연	95-800	하영애	95-1006	하영숙
95-442	하정순	97-300	홍재자	1442	홍정희	95-691	홍윤경
91-625	함영선	96-3	함다순	86-259	함영림	93-1851	함정영

5교구

98-081	강경기	92-1308	고민호	94-214	공병식	85-969	권복용
91-1781	김광자	89-54	김광은	90-940	김기주	2000-0019	김광영
82-285	김기현	97-40	김진	92-512	김기현	97-573	김영규
95-208	김영모	94-1965	김영숙	95-1058	김준우	91-401	김지운
4065	김용주	90-749	김정배	94-1031	김정홍	87-632	김종욱
87-11	김정숙	84-1284	김정숙	89-963	김정숙	89-397	노규식
93-1725	김정숙	89-1014	김정숙	85-666	김정숙	97-481	박대규
85-455	박종남	3411	박관수	94-736	박관수	91-646	박만수
86-973	박남식	95-299	박남식	85-736	박남식	90-115	박남식
91-317	양성민	82-137	유영민	89-1500	유영복	93-732	이영희
87-689	이미주	92-1488	이미주	87-540	이미선	94-949	이영희
90-815	이영희	89-692	이문구	95-154	이문선	92-1150	이영민
84-72	이현진	89-1202	임태희	99-1050	임영희	97-654	임영희
86-376	이현진	93-1102	장상식	2001-0273	장상식	95-120	장병우
98-1175	장규영	99-1171	장영태	94-1102	장영태	89-217	장진근
98-1379	정창록	89-914	조기태	94-729	조영태	90-270	조영태
80-747	조성수	86-43	주종배	88-866	채종배	95-243	채종식
92-433	최우진	91-616	최영희	89-449	한영희	97-293	최영희
98-331	홍성기	94-1972	홍창남	99-329	홍창호	95-189	홍순진
95-186	함영주						

여객사

92-1150	이연관						
89-901	강성숙	94-810	강문숙	89-1202	강민미	92-1150	강태현
97-481	고숙희	91-1238	고재자	87-931	권옥식	87-796	권태희
93-1725	김기현	93-88	김기현	90-309	김미리	92-211	김신향
81-53	김진현	98-425	김진영	87-643	김진숙	92-238	김옥선
94-156	김진숙	94-1598	김진숙	2593	김진숙	92-1488	김의정
94-1031	김진숙	81-289	김진자	94-002	김진숙	95-309	김현자
2000-0550	김진숙	85-455	김진숙	89-692	남옥순	92-115	남준자
87-731	남준자	89-914	남준자	90-159	류영숙	90-24	류영숙
92-820	문성숙	90-217	박경희	89-866	박경희	85-277	박순자
94-1995	박경희	91-1090	박경희	92-1183	박민희	87-784	박민자
97-243	박민희	86-376	박민희	87-632	변영숙	99-364	변영민
91-871	변영민	94-1972	서옥선	95-154	서옥선	84-72	서민선
80-747	서민선	92-1742	송영희	88-49	송영자	94-729	신경애
89-54	오영숙	93-1102	오영숙	92-945	안현희	88-950	안현숙
87-431	윤기자	90-749	윤영숙	88-629	이경자	90-1081	이규자
92-1494	이경자	88-397	이영숙	82-140	이은숙	95-154	이보람
95-120	이보숙	88-169	이현진	87-693	이현진	82-137	이영희
82-285	이현진	95-125	이영희	91-571	이영희	92-750	이영희
87-11	이재자	99-1050	이명희	85-969	임광자	96-1175	임광숙
89-688	임광숙	95-189	임정숙	89-770	임학선	88-1115	임학선
92-655	정경숙	95-208	정수진	88-794	전희경	90-610	전희경
88-1500	정영민	88-214	정영자	90-847	정영숙	88-287	정영숙
88-54	정순진	88-1014	정순진	94-523	정순진	95-694	정순진
90-404	조영민	81-561	조진우	88-961	최현희	97-563	최현희
88-1253	최영희	90-49	최영희	89-578	최영희	90-968	최영희
82-7	최영희	91-646	최영희	94-498	최영희	94-977	최영희
92-433	최영희	97-178	최영희	84-431	최영희		최영희

98-1102	김혜선	2004-0010	김혜도	92-1310	박미리	2000-0249	박은하
99-750	박영희	95-337	임은숙	94-1099	주영민		

6교구

남양사							
92-1617	고재선	91-412	고재훈	2002-0122	권현인	98-611	김덕은
82-531	김영숙	95-667	김간기	92-1630	김진숙	492	김영주
85-34	김영숙	85-569	김정길	2000-0394	김정배	97-89	김지희
89-711	김재희	95-8	김재희	88-675	김종학	94-1612	김지희
88-889	김진희	85-562	김진희	89-629	김진근	86-731	김종우
84-1274	나종현	92-70	나종현	96-145	류현진	91-657	김진희
88-539	박종남	96-1199	박종남	94-088	박종남	95-333	박종남
2861	박성현	93-1414	박성현	91-52	박성현	95-148	박성현
80-504	박선민	93-231	변영진	99-909	송영숙	96-218	송영진
87-742	송영숙	94-1254	송영희	87-833	송영희	88-965	송영희
99-165	양민수	89-29	양민수	91-127	양민수	96-620	양민수
85-619	양민수	85-299	양민수	95-150	양민수	90-1015	양민수
86-844	이계숙	97-627	이계숙	95-57	이계숙	2009	이계숙
96-1107	이성진	91-789	이성자	89-726	이성자	94-421	이연구
79-401	이연희	97-619	이연희	89-1275	이진규	93-1884	이연희
94-1201	정광숙	81-1002	정광숙	91-372	전순자	479	전세종
1971	정영숙	1280	정영숙	89-736	정영숙	82-622	조수희
90-827	조수희	86-172	조수희	91-1181	조수희	88-393	조수희
92-427	최영희	5384	최영희	85-432	최영희	91-485	최진
813	한성호	5329	한성호	91-88	한성호	84-1330	한성호
96-464	한준규	84-901	한준규				

여객사

95-238	변기삼	94-21	정종광				
88-418	강순교	82-528	강순숙	4341	고지영	97-776	고희만
89-649	박남숙	95-8	박남숙	92-51	김현숙	95-66	김현숙
94-1612	김영희	86-1045	김영희	84-1247	김대희	89-591	김영주
92-565	김영숙	86-172	김영숙	92-1630	김진영	91-72	김진영
93-1242	김수진	99-41	김수진	89-29	김영주	97-330	김영주
85-569	김유자	89-421	김유자	92-1630	김유자	87-833	김진희
88-153	김정숙	84-1217	김정숙	97-619	김정숙	2001-0153	김종숙
95-619	김지현	94-21	김지현	89-1340	김혜숙	80-504	김혜숙
92-1630	김혜숙	83-520	김혜숙	91-319	남성진	84-576	남성진
90-116	노계숙	84-1274	류영숙	94-1201	민준희	95-93	민준희
89-1330	박경자	91-127	박경자	88-886	박경자	84-1275	박경자
86-731	박경자	92-1057	박경자	85-562	서문숙	1971	서문숙
98-973	신순자	82-208	신순자	83-318	신영숙	93-393	신영숙
92-1167	신순자	97-89	신순자	1260	신영숙	82-490	신영숙
80-316	임옥자	83-312	임옥자	479	오재순	93-10	오영주
84-1231	오현숙	96-146	임경자	91-372	유경자	482	유경자
89-1362	윤계숙	87-741	윤계숙	94-988	윤계숙	89-1114	윤계숙
92-532	이영선	79-601	이영선	85-641	이모금	96-57	이모금
93-1376	이민선	91-789	이민선	91-52	이민선	4919	이민선
96-464	이영숙	85-539	이영숙	89-875	이영숙	85-667	이영숙
88-179	이영숙	96-1107	이영숙	91-68	이영숙	89-1424	이영숙
81-666	이현희	89-1105	이현희	93-1008	이현숙	95-150	이현숙
81-1002	이희숙	80-527	이희자	93-254	임영자	93	임영자
89-1285	정영민	1310	정영민	92-1232	정영민	93-1414	정영민
91-1181	정영숙	95-688	정영숙	91-412	정영숙	89-171	정영숙
87-742	정영숙	92-70	조영진	82-69	조영진	93-572	조영진
96-952	조영숙	94-310	최영자	266	최영진	82-627	최영자
96-909	최영숙	91-639	최영자	96-1130	최영자	95-1528	최영자
92-1624	최영자	99-254	한옥자	94-89	한옥자	89-775	한옥자
93-1884	한영숙	82-435	한영숙	90-527	황치희		황치희

7교구

남양사							
87-125	김정호	79-234	강신숙	95-540	강진숙	93-651	곽상조
91-732	권영희	83-42	권영진	2001-0380	김진숙	89-416	김대희
93-1032	김진	83-573	김진숙	82-273	김진숙	84-765	김영숙
61-61	김영숙	90-518	김영진	2860	김영숙	92-564	김영숙
86-272	김영숙	90-877	김영숙	90-715	김영숙	92-1244	김영숙
99-158	김영숙	92-1245	노영진	1992	노영진	2001-0533	박규수
86-497	박기용	96-771	박기현	84-77	박기현	2003-0231	박기현
94-360	박기현	93-1914	박기현	94-972	박기현	94-1987	박기현
79-352	박기현	95-1456	박기현	89-1128	송영숙	92-1680	송영진
3331	안영희	84-921	안영희	78-192	구영자	96-83	구영자
96-1172	이영진	85-530	이영진	79-96	이영자	96-24	이영자
95-171	이영진	93-397	이영진	93-255	이영진	84-645	이영진
91-1112	이영진	2002-0212	이영진	79-255	이영진	84-423	이영진
90-1066	이영진	2000-0556	이영진	87-774	이영진	3102	이영진
84-134	이영진	이영진	81-404	이영진	97-692	정영진	정영진
2000-0352	이영진	85-394	정영진	89-007	정영진	94-1359	정영진
84-171	조영진	91-674	조영진	87-256	최영진	1419	최영진
88-254	한영숙	95-1264	한영진	1419	한영진		한영진

95-1136	고성호	4509	심보현	90-743	한영진		
---------	-----	------	-----	--------	-----	--	--

여객사

95-2	김미영	93-165	김영준	2125	김미연	90-1066	공성현
91-477	공성현	89-681	김영숙	2002-0212	구자현	87-821	권영남
91-674	김영준	98-540	김영숙	81-45	김미현	79-362	김미현
97-689	김영준	94-1192	김영숙	90-743	김미현	95-1136	김미현
81-61	김영준	83-573	김영숙	92-1410	김미현	1419	김미현
96-1196	김영준	85-172	김영준	79-255	김영희	96-1156	김영진
82-273	김영준	94-300	김영진	79-182	김영숙	88-774	김지선
96-561	김영준	89-569	김지선	92-1321	김진희	2002-0082	김진희

2005년 일본 명단

93-42	이정숙	2000-0241	이배경	89-323	이배경	1221	이흥욱	
91-606	임정순	92-1679	장수혜	5192	장순자	85-454	정국자	
91-465	정영미	98-985	전국순	98-767	전성숙	303	정영순	
84-394	장영진	88-549	박성순	88-1054	장정임	87-504	정순태	
92-1282	조계순	86-280	조영자	89-207	조순진	3283	조영근	
81-759	조희영	89-740	주완순	89-1460	지문자	84-169	차봉순	
89-232	최광순	97-928	최광자	89-639	최희숙	80-412	최영숙	
83-162	최형진	99-337	최형자	4543	최희숙	886	최영숙	
89-1255	최정임	94-35	최희경	91-1005	한경숙	79-247	한성숙	
91-1005	최정숙	98-57	한순자	85-687	황금숙	94-26	황금숙	
89-230	황지환	88-437	황현선	92-632	황효진			
(2005 신임)								
2003-0034	강정혜	1313	김주은	98-1126	도경아	89-144	박유미	
5390	손경희	94-235	이태현	94-957	유계순	81-296	유미경	
97-725	정영창	97-356	수주미					

9교구

남십자								
88-355	김광록	83-629	김태록	85-707	고광국	4583	김규태	
94-253	김군태	83-112	김동희	80-72	김영집	82-636	김진환	
92-226	김정현	82-28	김영봉	80-416	김태자	89-204	김영태	
84-1011	김을수	90-156	김정용	82-835	김종근	3338	김종현	
88-1155	김현용	92-61	김할수	95-784	김태희	89-705	김하주	
92-1569	김학순	95-321	김향태	84-953	김향동	85-622	김향원	
80-792	김희경	84-685	남광숙	89-1032	라성진	87-475	문득오	
3233	박병문	93-333	박성순	1343	장정임	93-1321	박성봉	
89-200	박영순	93-8	박임규	93-1796	박영자	2237	박현수	
87-98	백영아	91-1015	백영자	80-797	백영자	2568	송순자	
82-711	송영선	84-643	안영진	84-966	양귀자	5216	임동란	
82-79	오복태	79-553	윤정숙	90-978	윤정숙	2003-0371	이성현	
3821	이성현	80-690	이문복	3821	이문식	81-330	이종환	
82-242	이진혜	85-123	이희경	97-342	이희경	85-155	이희정	
87-33	이희자	4646	이흥선	82-341	임광순	96-534	이태현	
5139	전영태	96-1197	장근호	86-247	장문순	98-006	장재도	
84-988	정복자	93-773	정종현	84-38	조기하	86-705	정성태	
226	차광순	80-187	최현진	5004	최광자	89-1057	최석규	
84-538	최희경	89-232	최형인	96-1018	최희경	87-576	홍관진	
89-741	홍기환	84-160	홍효숙	1212	홍인국	1212	홍관진	
4104	황영선							
(2005 신임)								
92-662	장유진	95-321	김영남	81-234	김기호	89-87	김이문	
90-964	신현철							

여십자

89-1332	김미연	2002-0070	김영자	99-1089	김향정	3293	김순자	
93-353	권영미	84-185	김성진	2316	김성진	82-636	김진환	
84-140	김영자	89-232	김영희	89-215	김영희	97-371	김미라	
96-1018	김미연	90-978	김영희	89-577	김영희	94-658	김영희	
87-475	김옥희	86-227	김영희	1219	김영희	86-38	김윤순	
79-353	김정현	82-201	김영순	84-311	김영희	4401	김종숙	
96-534	김희자	84-1386	김순진	92-463	김환진	93-226	김영희	
82-667	김정현	86-123	김현숙	93-1321	김효진	84-160	김효순	
89-1382	김희숙	96-640	김희숙	87-692	노영희	96-197	황근주	
2000-0569	문영숙	82-835	문현정	2002-0057	박영자	89-176	박유미	
84-953	박영자	82-711	박순혜	84-202	박희진	85-690	박현숙	
82-242	박영순	80-860	박영진	82-230	박영진	2000-0638	박유미	
95-1057	박영희	92-1735	박영희	86-287	박현주	3675	박영희	
88-795	박영희	81-257	박영희	93-8	박순혜	95-321	박현숙	
87-166	박영희	81-330	박영희	92-1389	서정숙	2000-0281	서정숙	
92-1068	송기숙	80-416	송영숙	84-45	송순자	2852	송순자	
4583	송영자	86-24	송영희	4759	송인숙	80-133	신복현	
84-247	신정자	89-1068	송영희	80-187	송영희	81-234	송유미	
83-316	오희숙	85-355	유미보	357	유은숙	80-797	윤순주	
1311	이영희	84-988	이영희	84-6	이영희	89-230	이영희	
2002-0190	이영희	89-690	이영희	83-112	이영희	92-1405	이영희	
95-784	이영희	89-941	이영희	81-231	이영희	2001-0346	이영희	
89-935	이영희	92-1569	이영희	92-47	이영희	86-882	이영희	
98-1155	이영희	89-451	이영희	87-294	이영희	81-118	이영희	
82-629	이영희	1212	전희숙	80-792	전희숙	84-988	전희진	
95-285	전영진	1409	전영희	84-541	전영희	87-604	전영희	
92-61	전영진	81-16	전영진	1365	전영희	2036	전영희	
86-705	전영진	85-707	조순태	541	조영희	93-706	조영희	
84-1011	주순정	88-625	지선미	3338	전희자	99-964	최현숙	
97-890	최희숙	94-258	최희숙	91-511	최희숙	90-713	최희숙	
84-966	최희숙	226	최희숙	93-1482	최희숙	2003-0281	최희숙	
92-621	한수	80-72	최희숙	93-1796	최희숙	92-652	황희자	
83-330	최희숙	84-643	황영선	4104	황은진	82-79	황희자	
(2005 신임)								
96-47	김영남	88-590	김지희	2852	김혜영	2000-0158	매영숙	
2001-0420	이원식	99-319	송기숙					

10교구

남십자								
115	강대우	99-112	강병모	2880	강신근	81-1022	구승희	
2382	강기태	1114	강기태	2382	강순철	81-144	권영진	
81-999	강기태	83-666	강기태	3250	강태희	90-5	권영진	
97-31	강기태	2400	강기태	98-454	강영준	82-618	권영진	
82-328	강기태	88-620	강기태	89-1216	강기태	81-514	김기형	
82-630	강기태	94-292	강기태	93-315	남일훈	794	노영남	
86-639	강기태	81-755	문승길	2390	강기태	90-444	박두원	
89-1368	박두원	97-281	박기순	94-1105	박기순	80-56	박기순	
91-128	박기순	91-81	서정숙	4998	송희숙	92-1753	신복현	
79-156	신현숙	87-224	안문희	97-573	오종훈	4842	오해성	
90-1062	유은진	87-613	유은진	2003-0280	유은진	82-625	이성민	
4422	이성민	84-858	이성민	86-4	이영희	5248	이영희	
84-101	이영희	91-80	이영희	1408	이준식	88-22	이영희	
93-1327	이영희	4405	이영희	555	정태식	1588	전선기	
2828	정영주	80-19	조영현	4240	조영현	88-1134	조영현	
95-244	조영현	79-40	조영현	91-983	차정기	93-933	최영준	
1933	최영준	803	최영준	3465	한종구	777		
(2005 신임)								
93-1627	이영희	93-1071	정종현	4212	정호길			

여십자

82-328	김보현	81-38	강기태	79-221	고영목	4405	구덕임	
81-999	구영숙	95-244	권순희	803	권영실	1546	김영희	
2849	김정희	81-458	김기태	115	김기태	79-40	김기태	
83-176	김정희	97-774	김기태	89-1333	김기태	97-909	김기태	
81-510	김기태	413	김기태	99-1061	김기태	86-4	김기태	
94-1314	김기태	89-1563	김기태	2001-0498	김기태	90-48	김기태	
3465	김기태	794	김기태	83-666	김기태	82-625	김기태	
82-842	김기태	94-1134	김기태	90-444	김기태	4360	김기태	
4766	남기태	93-112	문기태	82-621	이영희	82-328	김기태	
89-1368	박기태	94-217	박기태	5131	박기태	87-312	박기태	
84-101	박기태	81-719	박기태	89-1312	박기태	91-81	박기태	
82-520	박기태	94-124	박기태	1617	박기태	97-48	박기태	
99-1167	신복현	95-143	송영희	84-882	송영희	4716	송영희	
88-63	오희숙	84-101	여영희	91-1158	오영진	2079	오영진	
93-1793	오희숙	84-92	유영희	450	유영희	86-639	이영희	
94-292	이영희	97-281	유영희	91-128	이영희	1492	이영희	
2000-0160	이영희	80-1531	이영희	81-755	임이진	4126	임이진	
93-127	임이진	96-302	임이진	4422	정세희	806	정세희	
93-1327	전희숙	92-803	전희숙	89-336	정영희	5248	정영희	
79-87	전희숙	91-983	전희숙	90-315	정영희	84-1102	정영희	
95-1317	전희숙	91-128	정영희	3324	정영희	93-1669	조영진	
88-520	조영진	4156	조영진	87-224	조영진	88-20	조영진	
94-1473	조영진	798	조영진	93-933	최수진	2002-0271	최수진	
89-22	최영희	81-1022	최영희	89-973	최영희	89-327	최영희	
79-156	최희숙	84-938	하영진	98-1124	한세자	81-144	한세자	
87-613	황금숙	81-968	하영진	91-956	황미자			
(2005 신임)								
92-1753	김순태	5206	유영숙	92-321	이영희	81-1025	조문선	
94-105	최희숙							

11교구

남십자								
2001-0163	김기태	82-527	김기태	93-1458	김기태	87-521	김기태	
95-807	김기태	4102	김기태	89-301	김기태	97-657	김기태	
82-422	김기태	83-656	김기태	1903	김기태	82-482	김기태	
89-637	김기태	86-359	김기태	2712	김기태	94-488	김기태	
83-1070	김기태	86-1147	마영희	3372	문영희	92-123	문영희	
92-598	박기태	83-34	박기태	557	박기태	82-680	박기태	
94-179	서보현	85-578	신영희	94-610	신영희	1342	신영희	
59	양영희	87-463	양영진	87-23	임은식	1012	오종훈	
4243	유영진	91-195	이영진	89-965	이영진	79-16	이영진	
79-117	이영진	1576	이영진	40	이영진	88-118	이영진	
176	이영진	99-1133	이영진	86-34	이영진	5231	정영희	
94-459	이영진	94-459	조영진	81-71	조영진	2001-0363	조영진	
2000-0326	전희숙	1061	최영희	93-1974	최영희	81-696	최영희	
(1999년 최영희)								

여십자

83-156	김기태	2372	김기태	84-277	김영진	3464	김기태	
87-465	김기태	97-657	김기태	87-463	김기태	90-488	김기태	
3303	김기태	87-23	김기태	89-301	김기태	81-175	김기태	
86-480	김기태	2000-0326	김기태	1342	남기태	81-711	문영희	
89-1533	문영진	84-619	문영희	5362	박기태	82-794	박기태	
84-850	박기태	84-391	박기태	5282	박기태	91-865	박기태	
89-865	박기태	91-493	박기태	82-527	박기태	83-168	서기태	
91-950	서기태	85-888	서기태	2001-0052	서기태	85-578	서기태	

2005년 입권 명단

2000-0496	기한주	87-842	김재배	90-839	김남순	84-559	김미자	93-1612	허하나	84-1345	한지연	84-1004	한해정	95-1470	한희순
87-534	김선영	87-549	김성희	79-385	김순이	93-409	김순자	99-1155	함영민	5227	함봉배	95-236	하미자	92-1743	홍영희
89-451	김영남	82-825	김영순	3807	김영주	3661	김영화	89-1542	홍창동	91-821	황원길				
89-230	김영희	84-672	김영순	88-685	김재남	1091	김동희								
85-416	김정숙	3065	김순옥	79-385	김혜숙	88-320	명신덕	89-785	김태숙	85-38	박재정	99-1186	신우성	95-507	이도연
82-669	모미애	94-1480	박재민	5012	박기근	4586	박삼순	1673	최창국	2002-0089	황성숙				
89-829	박성범	83-320	박수민	92-62	박영희	87-003	박재경								
86-122	박종은	88-695	박철순	84-1194	박정호	84-225	복장숙								
89-625	서정애	92-600	성미선	79-15	성점오	86-610	송영복								
95-329	송희순	90-672	신서문	85-870	신송자	99-1122	신은덕								
89-1505	신은희	81-535	심재선	89-733	양연희	89-626	양영혜	86-58	김동주	90-552	김연하	99-992	김 욱	96-62	김정연
95-269	양영실	92-736	여영순	85-119	오연숙	84-1039	오정자	99-497	문순희	91-418	박숙자	2004-0432	변상철	91-318	김이훈
89-1099	유영희	2889	유기영	15-15	윤정숙	84-1022	윤장경	98-801	이동훈	84-265	이상근	91-628	이상현	98-316	이종훈
92-1143	윤미경	92-1210	윤영자	83-448	이영숙	92-105	이민순	98-1214	임성용	94-600	장호권	97-589	정순규	2003-0495	정재숙
2000-0323	이영희	5345	이숙옥	94-1111	이연숙	90-665	이영자	97-606	조규철	2001-0112	조상민				
84-63	이옥녀	89-609	이옥순	92-650	이몽신	2003-0098	이은정	96-075	김현미	99-375	김현우	2003-0040	박종민	98-1241	이경훈
2003-0263	이주희	84-1282	임정희	4946	임은희	94-1134	장보란	99-311	김현미	98-487	이재진	2002-0337	김의명	90-932	최희훈
87-437	최희자	83-419	장정희	93-802	장문자	99-686	장은혜								
95-1187	정창자	96-303	정영희	95-115	정혜연	3336	조봉순								
96-1011	조성숙	96-1210	조경자	81-663	지영선	4641	최경자								
2000-0237	최미경	90-1173	최희자	4667	최광남	4248	최영미								
90-134	최호삼	93-413	최희숙	1490	한경민	83-614	한영희								
1492	한옥봉	90-767	함은숙	89-30	한영희	95-80	함남진								
(2005 신임)															
96-1249	김수진	3661	배지혜	88-1244	윤지영	91-447	정승희								
5277	최희자														

18교구

남십자	강성희	86-558	강연규	2003-0209	강진숙	92-1654	강종열
93-1962	구본희	95-1735	구근희	87-631	권영희	79-345	김 경
96-881	김경순	3835	김영남	88-23	김갑선	92-1644	김동주
2844	김종숙	86-666	김영희	81-474	김갑선	85-709	김영희
82-732	김인희	79-345	김재문	2285	김재희	95-849	김정영
92-1674	김종현	99-11	김종홍	93-698	김종기	85-705	김진업
85-38	김태정	92-954	김성희	91-822	노국희	92-1743	박재현
2003-0171	박승선	88-293	방 익	92-421	배병호	84-865	배복식
94-189	배승환	84-1044	송병기	2905	송병호	84-632	송승규
5113	송승주	90-365	신한길	449	인태희	92-246	인태희
95-378	양두원	89-690	여영호	559	오경숙	80-243	오경일
80-243	오미성	96-509	원정숙	91-1118	유진희	82-378	이강재
2000-0020	이영현	89-174	이기용	92-756	이동규	79-446	이석종
92-729	이성근	1892	이매순	1254	이재옥	90-300	이재환
81-864	이종훈	603	이현주	96-230	이태현	79-9	이현숙
82-129	임광진	5134	임정현	87-624	정동규	79-667	정영숙
3006	전병남	92-1004	전석현	97-144	정금주	79-294	정태호
88-654	정문재	1892	정영희	95-1489	정영희	65-617	정성민
95-841	정재경	659	정영희	88-688	조규진	91-478	차성우
95-1739	최희자	84-463	한은석	90-668	홍석강	89-785	홍성근
80-61	홍성주	85-424	황정현				
(2005 신임)							
95-507	김학진	2003-0511	노성길	2002-0391	박병일	2002-0089	신동식
94-1584	이영규						

여정자

92-954	강민경	92-1654	강선애	90-40	강영희	92-756	곽진희
89-747	구경희	659	권영희	81-172	김윤주	91-139	김경숙
89-174	김민경	91-984	김미자	84-722	김미자	93-442	김희희
4171	김선영	94-678	김성자	92-475	김 순	85-38	김성영
95-1735	김선영	93-762	김연선	93-735	김숙자	87-168	김종희
80-282	김유순	92-441	김민선	81-389	김정숙	94-961	김종환
81-474	김지현	92-729	김미희	81-864	김진아	94-1584	김현하
2164	김혜영	90-1035	나은혜	97-144	남계순	91-300	남영숙
87-513	남우순	38	노영순	90-1018	라기숙	90-112	라은진
94-1176	문수자	97-542	민정순	93-1857	박경숙	86-546	박영숙
89-181	박경애	96-641	박근남	92-421	박금희	84-1174	박신남
91-1063	박선숙	87-113	박성희	603	박영희	94-669	박영미
92-1004	박영자	97-414	박숙연	91-822	박희자	94-913	박영희
84-913	박정희	94-169	박선숙	82-378	변정진	95-641	서희자
79-567	서정숙	93-259	송영순	82-96	송혜경	88-23	신복진
3199	심정애	87-624	심정숙	92-1644	안정숙	2000-0020	안은자
96-881	양행자	91-478	양영애	89-690	오계순	84-614	오은자
84-1346	오영남	94-169	원순희	93-1962	유계순	93-793	유영민
84-618	유재옥	95-1557	윤금자	2003-0171	이민복	93-1064	이선희
82-732	이성희	95-1489	이순자	4230	이연희	92-537	이영주
95-849	이영순	90-666	이영미	95-1739	이진하	84-1044	이현아
96-709	이현희	85-617	이희희	1655	임민순	91-1118	임영희
79-446	전명식	92-471	전민자	88-151	정혜진	1673	정희정
93-1638	조수진	82-129	조옥희	4409	조옥희	93-698	조은정
84-865	조정희	98-427	주은숙	96-509	지정민	85-565	채은실
5134	최경희	92-1654	최선자	99-11	최성남	3638	최숙경
79-345	최영순	95-1030	최영희	84-496	최정순	94-593	하혜숙

93-1612	허하나	84-1345	한지연	84-1004	한해정	95-1470	한희순
99-1155	함영민	5227	함봉배	95-236	하미자	92-1743	홍영희
89-1542	홍창동	91-821	황원길				
(2005 신임)							
89-785	김태숙	85-38	박재정	99-1186	신우성	95-507	이도연
1673	최창국	2002-0089	황성숙				

19교구

남십자	김동주	90-552	김연하	99-992	김 욱	96-62	김정연
99-497	문순희	91-418	박숙자	2004-0432	변상철	91-318	김이훈
98-801	이동훈	84-265	이상근	91-628	이상현	98-316	이종훈
98-1214	임성용	94-600	장호권	97-589	정순규	2003-0495	정재숙
97-606	조규철	2001-0112	조상민				
(2005 신임)							
93-375	김현미	99-375	김현우	2003-0040	박종민	98-1241	이경훈
99-311	이재진	98-487	김의명	2002-0337	김의명	90-932	최희훈

여정자

92-455	고혜영	94-138	권영희	90-514	김민도	94-1426	김미선
94-190	김선영	98-273	김선정	93-549	김성희	92-807	김소희
98-149	김수진	89-136	김수진	2002-0048	김연주	95-1435	김은경
95-283	김정남	92-769	김현진	88-525	김혜자	99-482	남규영희
97-102	문성희	99-36	박기애	95-1760	박현숙	2000-0584	박현하
97-788	신영현	96-1037	양성진	2000-0337	유미희	99-1223	이강희
97-700	이순주	93-271	이예스더	2000-0242	이진희	86-465	장현희
94-600	장호권	99-612	전혜숙	99-85	정서희	95-1224	정연희
2003-495	정재숙	99-214	정희숙	2001-0022	조재정	94-254	조한길
2000-0015	최정경	96-647	최은영	94-944	최정미	99-93	한경숙

(2005 신임)							
2000-0469	권애스더	92-784	김희희	2001-0043	김지희	1589	김진미
96-386	민수정	97-353	이정희	95-239	이유미	91-1257	임정진
90-1097	전보은	96-741	조현숙	98-459	한혜희		

[2005년도 권할 명단]

1교구

97-619	고서영	92-1448	김성숙	99-1240	송기정	2000-0523	송미례
92-1681	유 항	2002-0029	이남재	2002-0272	이민영	2001-0501	이영자
92-1681	이유미	2000-0443	정영숙	95-612	정창자	2000-0371	정유자
(2005 신임)							
2002-0007	이영희	99-172	이영미	2003-0101	이민선	91-808	허석은

2교구

92-305	금안숙	93-1814	김미정	93-1817	김성희	99-987	손진아
91-692	신민희	2000-0447	이영희	2002-0246	김복선	90-714	정금례
99-025	정영숙	91-883	조성희	99-1091	지강미		
(2005 신임)							
2002-0007	이영희	99-172	이영미	2003-0101	이민선	91-808	허석은

3교구

92-560	김미정	93-506	김보덕	99-408	김순연	96-549	김현숙
2002-0291	류정희	93-284	송경숙	89-1163	안희순	93-1245	유숙숙
2002-0093	윤혜윤	92-1719	윤지은	95-1700	이성경	90-455	이민자
(2005 신임)							
2003-0517	민주영						

4교구

498	김정미	96-550	김갑순	82-56	김숙자	97-298	김순희
389	김장숙	87-439	윤은준	91-778	이남숙	96-152	이미아
95-1170	이숙경	92-737	이현정	98-1121	정영주	2001-0165	정혜원
97-819	조숙희	97-470	최은정	94-856	최희열	90-291	서순복
(2005 신임)							
2003-0025	김승현	97-235	설일호				

5교구

93-24	김문수	97-415	김혜정	96-268	송은희	94-1253	정경경
96-329	정성순	97-654	조경순	98-376	한옥남		

6교구

90-566	김정숙	91-857	김갑선	95-665	김민선	91-1191	김정민
98-196	나윤자	88-571	송성진	98-618	송정진	96-611	유혜원
86-525	이민주						

【 2005년도 각 위원회 일꾼 명단 】

당 회

서 기 / 노광현

부 서 기 / 김단용

예배위원회

위 원 장 / 오진국

지 도 / 정친호

서 기 / 정청길

회 계 / 황의만

예 배 부

부 장 / 정청길 위 원 / 이태식 신상수 김중선

차 장 / 노대경 김해길

1부 예배 / 조장 최남하

2부 예배 / 1층 조장 심화인 2층 조장 이종원

3부 예배 / 1층 조장 안노수 2층 조장 강진택

4부 예배 / 1층 조장 이병영 2층 조장 권오준

5부 예배 / 조장 노대경

찬양예배 / 조장 구원섭

수요, 2부 / 1부 조장 강진택 2부 조장 구원섭

조원 / 박범익 박준근 한용배

성례부

부 장 / 황영일 위 원 / 김영은

차 장 / 김석윤 이미재 심효숙 조 원 / 권오준

1조 조장 / 김은숙 조원/박영일 김인숙 조중선 이인숙 유선덕 이종영 김숙자 정현자

2조 조장 / 신영선 조원/우정자 조복덕 이오목 구정희 안정자 이금순

3조 조장 / 임옥환 조원/이영숙 정주환 변성옥 이영숙

4조 조장 / 박영기 조원/박효지 김양자 김은숙 성부자 최선자 문인란 정복순 이수자 강신순 이근덕

5조 조장 / 이인숙 조원/최영덕 변금순 변옥희 박영순 고경숙

6조 조장 / 염숙현 조원/임근에 저순애 한영덕 이순일 최규 이영영

안내부

부 장 / 안동현 위 원 / 최윤덕 강철형 김은철 부지도 / 윤인숙

차 장 / 이승재 정은희

1부 예배

조장 / 김인희 조원/김영호 이한재 강태영 정재하 박경희 박희수 김종녀

2부 예배

1층

조장 / 박석봉

조원 / 강석화 송영삼 문득오 이선홍 박경희 김옥연 김행자 원정희 김하경 정은희 박봉연 강철환

2층 조장 / 모미애 조원 / 서성미 이미숙 고상숙 윤효순 이정희

3부 예배

1층

조장 / 박옥림

조원 / 김현근 이연구 김중서 원종삼 권영일 김재영 노규식 김영길 김철수 김유자 한정희 민영기 윤향중

김영희 김희수 조연이 유현숙 홍경숙 김경숙

2층

조장 / 윤석규

조원 / 김성수 장관규 강주원 임태현 이옥자 김영연 김순자 서옥선 조영태 권영남 윤현숙 이형자

4부 예배

1층

조장 / 최만우

조원 / 이승재 박재현 김순자 이상순 한기희 박성애 윤자옥 정승향 서해경 이만순 천명식 한영란 황향

저영순 김옥선

2층

조장 / 양삼순 조원 / 최동식 김재명 황희희 김순재 김경희 문경숙 차옥진

5부 예배

조장 / 강현정

조원 / 윤석원 김효인 김지호 권동희 홍의 박선우 김소연 장태은 조성이 손향아 박경진 김소정 김재창

김효주

찬양 예배

조장 / 김형자 조원 / 강석화 노수식 오우민 양승복 박경희 김경숙

수요 1부 예배

조장 / 김영숙 조원 / 정은희 도수자 서옥선 윤현숙

수요 2부 예배

구재환 구원섭

금요 집회

이상재 강두형 구원섭

세백기 도회

월화 / 구재환 구원섭 강영희 수목 / 구원섭 이승득 금토 / 최종순 장기락

현금부

부 장 / 한승규

위 원 / 황의만 배춘식 박철구

차 장 / 박광석 양명옥

부 지도 / 김영순

1부 예배

조장 / 문홍무 교역자 / 전은희

조원 / 구창희 김명성 김옥진 김중성 김현철 윤해균 박영석 박옥현 박찬서 안준모 양효민 유재훈

유종석 윤용현 문경란 이병두 이상돈 이신준 이재호 이광희 이희우 장기락 전성옥 지정록 최경하 최종순 허형철 홍순길

2부 예배

1층

조장 / 양명옥 교역자 / 강덕필

조원 / 김옥선 정은숙 조종연 한만식 신명자 권정자 이영자 정옥화 최희화 최문홍 이숙희 강해숙 조윤정 김경순 이동섭 정승진 공정자 정효식 강정일 장옥숙 강영자 이현주 송경옥 배연식 이단순 정호진 이광자 장병택 강경옥 안숙자 조종민 문영숙 김봉재 지인숙 김순자 윤용현 김진순 방병자 이경은 권종수 신정희 문인란 김영진 최용길 박기원 유병순

2층

조장 / 이강근 교역자 / 김정희

조원 / 최 규 정영연 이정희 박옥환 박은숙 조윤숙 김일중 강순희 강일현 윤정자 반연숙 오형심 고명진

문득만 박진일 김대옥

3부 예배

1층

조장 / 이명숙 교역자 / 신동자

조원 / 한금태 협화자 주영선 최경자 노본선 이명재 김현옥 이금수 김경숙 김점례 신희섭 임진숙 이덕심 한원수 고미숙 강준자 김단란 김경수 임창순 김화순 남일홍 하발영 김춘남 김지은 박정혜 김주분 안오선 정경자 이영숙 이명진 이형란 이수정 고명옥 김중순 백남식 김희숙 이순남 김희옥 이광주 김순자 박영순 김경순 심호섭 김경복 전복식 최순자 박현주 박영희 이희향 김승희 강천석 김갑순 이수인 최복래 조용기 백용순 홍점순 김자영 최천숙 김경기 이명호 공보근 남정자 유영선 박경태 박대근 허용순 박연자 이명금 강혜경 고영태 송태숙 박근자

2층

조장 / 박광자 교역자 / 한영준

조원 / 조남일 이영의 서경자 홍복기 남상인 김세진 김강호 송문식 원혜영 임정희 김현자 이상옥 이문규 이요남 김한숙 김경익 김경자 문영남 유정자 조옥자 정길래 고효영 김차금 최병초 박경숙 최영옥 엄환순 황호선 박근자 신조자 정영배 임삼애 이순일 최정자 박향란 김지연 이한근 김경숙 박종숙 손복희 김상호 김숙자 김옥자 홍현희 이경애 홍현숙 이민호 서혜경 윤종섭 이광희

4부 예배

1층

조장 / 김현순 교역자 / 김영순

조원 / 정철석 장삼진 박인자 김성희 이경자 최인순 구정희 설춘순 박복숙 전윤숙 한경옥 이수자 강순자 김진희 김신향 고인순 김영미 김인환 함자옥 차정민 김명숙 박수정 함명년 안순옥 송영자 이종희 박경자 김동화 김월분 이옥자 김우중 임희태 강경애 백애순 최금중 김효자 손명민

2층

조장 / 강 옥 교역자 / 홍은애

조원 / 김명화 이경자 최경은 송윤연 이기애 박귀순 나정순 이규자 이혜주 이복옥 최광숙 전옥이 정금자 김경희 양영자 김순옥 여정자 장근자 김희자 이신록 강석분 임도화 유유순 김승희 김희숙

5부 예배

조장 / 양명옥 교역자 / 이복순

조원 / 방동환 안경호 김국태 이광희 박주희 이신화 이하경 안윤정 송민규 홍정민 김재현 박경문 최호근 손효기 윤용성 고희섭 이동훈 이슬기 정성미 김예진 이슬민 오현양 이지연 지은미 김 준 이한원 김신아 남성옥 배성은 전혜정 정다희

수요 헌신 예배

조장 / 박광석 교역자 / 김영순

조원 / 양명옥 정호진 장옥숙 신정희 문인란 정옥화 문영숙 이명숙 김승희 노본선 김희순 김순자 이희향 김정수 심호섭 남경자 김현은 백애은 강경애 박재자 이옥자 김순재 김옥진 안준모 전성옥 최종순 홍순길

2005년 입교 명단

배이스
김유정 김경은 김현배로 박병규 백승환 심재원 오현 오홍균 유재혁 이성빈 이성훈 이세이
이재신 이경주 이태원 이택형 이호근 정재원 지상혁 최민우 한경우 황정연

김유정 김유빈 김유송 김은진 김인애 김지은 김형규 노주원 노예원 문주영 박경진 박미연
박서정 박정희 박지은 손석호 윤지현 윤혜리 이나현 이준형 이준형 최진영 이한봉 이한솔 이희연
장지혜 장나혜 정명근 정한나 조아영 조수진 차병석 차병철 최진영 최진영 한사라 한상현 한이래

범엘오케스트라

총무/이다형 악장/이예스더 편곡/백선욱
대원/ 권택원 김상구 김은지 김지호 김진경 김형준 류희근 민경나 민정옥 백선욱 백지연 서단비
서유진 산동진 유나현 유미경 유미나 유미영 유승희 이다형 이시은 이예스더 이정림 이주은
정혜진 최하루 한세희

만도린 연주대

대장/이연순 부대장/구영희 총무/최근준
지휘/이승순 편곡/김지은

예본찬양대

대장/구재환 부대장/이보신 김경희 총무/이미애
지휘/김혜선 반주/오민선

대원/

곽숙단 광영자 구영희 권미선 김경숙 김명선 김미연 김숙자 김순옥 김현향 김옥기 김은주
김성옥 노소옥 명혜영 민주영 박귀숙 박종영 변순복 서성미 서인희 신혜옥 안분조 안선자
오명자 오미령 유영순 이경자 이명희 이연순 이영순 홍혜영 홍의숙 김대곤 유병수 진영순

소프라노

강윤정 김경은 김미연 김지선 김지영 김자은 김지혜 김현정 박소연 박은지 서유정 양호진
염세복 유가원 이미영 이선애 이현주 장수정 전하라 주다인 주재화 최시원 최유리 하신영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차신득 지도/김영훈
서기/정선현 회계/노영한

알토/

김성은 김갑삼 김유영 김지선 백지숙 오민영 유선아 이송이 한국화 현슬기

테너/

강진 강경주 김도홍 박상훈 박진수 이사무엘장진호 표세현

베이스/

송성배 심재숙 이성규

영아부

부장/문효식 지도/이옥주
부감/김성호 이상숙

예본오케스트라

총무/이미애 악장/이영훈 편곡/민경나
대원/ 강지은 고혜진 김건호 김진희 이지은 전다인 최한나

남교사

김옥 박진수 이재준 전성옥 자성광
영조 강순 고희란 권경애 김영자 김선영 김신애 김연옥 김영란 김경임 김경희 박미경 박선영
박효순 손순자 송혜경 안순복 안정희 옥미자 유은경 이규숙 이마나 이은옥 임영숙 정금자
조은정 조현숙 최숙자 홍은기 황현주

호산나찬양대

대장/양신자 부대장/이화자 총무/이영숙
지휘/이승순 반주/김신영

유아부

부장/이상해 지도/김정연
부감/이세영 김정희

소프라노/

강순희 고효희 김경숙 김성아 김성자 김숙자 김순자 김연수 김은숙 김재명 김재숙 박광자
박희희 박민자 박희숙 방신자 백경옥 백순자 백영희 서희자 성순옥 신영자 신영희 안경덕
안정희 안혜원 양신자 양신자 우병희 윤춘실 이군자 이순일 이종희 이주희 이종영 이화자
전성실 정관선 정순자 조영자 조종선 최경선 최숙경 최희자 최현숙 허인숙

남교사

박종은 유병명 조동일
영조 고혜란 권진숙 김광미 김두연 김현경 노재희 민병복 박광만 박예선 안영숙 양혜영 유주옥
윤선주 이마나 이혜선 전금수 정재화 정혜리 정혜실 조옥연 조혜인 지은옥 최혜솔 최경희
한다정 한지연 홍순연 황혜진

메조소프라노/

김순은 김영희 김은숙 김효자 노경자 박명연 박복숙 박신자 박숙자 양숙자 연속현 오경희
윤순 이영숙 이인숙 이재숙 정금자 조용기 조은신 채혜선 최막걸 한경남 홍명희

유치부

부장/전학래 지도/조옥자
부감/오순도 손유비

알토/

고승대 구영희 금호순 김경자 김금숙 김봉숙 김선도 김영희 김외숙 김희수 백영자
신소자 신정순 안경자 이수덕 이규숙 이수자 이영영 이희주 장명숙 전신희 최하라

남교사

김남현 박진숙 유영근 이윤현 이창희 최영인
영조 강소영 강장자 김명은 김소연 김소희 김수진 김명미 김예은 김옥희 김은경 김인영 김형옥
노미소 문애숙 문자연 박진영 박정숙 박혜선 서단비 안정숙 안지연 안지연 오명자 유미향
이경진 이명진 이명희 이연복 이선자 이영선 이영희 이희연 최은진 최지숙 함유순 최영희
정은미 조인혜 조한나 지정연 최귀순 최미정 최현숙 최은진 최지숙 함유순 최영희 최영희
홍화숙 황은정 황은정

실로암찬양대

대장/윤석민 부대장/권영주 김중자 총무/이세영
지휘/강일규 반주/임효선

유년부

부장/김희곤 지도/황진섭
부감/김홍기 김유선

소프라노/

권은미 김남나 김동심 김동주 김선자 김소연 김경래 김경연 김중자 김혜선 김혜숙 노영희
류진희 박성순 박정애 변혜자 손영숙 안종남 오명자 안종남 이윤정 최종란 이송이 이상지 이숙희
이유주 이정애 임은숙 전수연 정순숙 정은희 조인숙 최영림 최종란

남교사

김중만 신대홍 이성현 이재숙 정금주 장석운
영조 고혜영 김경남 김명희 김미숙 김미숙B 김민희 김정은 김은경 김연희 김영후 김은진
김주연 김지혜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신동미 안정숙 엄유선 윤은경 윤지영 이교숙 이예원 이영자 이경희 이종자 송정희 이희주
임은미 임지희 장명숙 장영분 장정진 전영선 정명주 정순화 정영자 천명규 천한나 최상현
최영자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최지숙

알토/

박노경 김경숙 김말자 김영란 김영은 나선경 박성희 백지연 송희명 오수미 윤인숙 이성희
이숙희 이재숙 최정미 한영준

초등부

부장/석영식 지도/윤수원
부감/지규설 이종영

테너/

고광환 김교섭 김용덕 김익환 김철환 박노용 윤석민 위진광 이경재 이경준 이상주 이세영
이정희 이재영 이상주 이희식 임현덕 장진호 정성영

베이스/

권영주 김신국 김영훈 김준희 김철곤 나광영 류병희 안창덕 안치원 양승훈 여국근 오상덕
오순도 윤수원 이훈 이계연 이성진 이세익 이종택 이종택 장훈 정진호 정종신 조규호 최장규
최윤덕 최희룡 하종철 황진섭

핸드벨 연주대

대장/김승옥 총무/임희연 지휘/송재원
대원/ 강미경 강부희 공진규 김내인 김병우 김선영 김진주 김성해 김영림 김재현 김영준 김유진

2005년 일꾼 명단

남교사

고충현 김철환 김영훈 김하경 문원준 박홍식 송병열 예정호 오해섭 이상경 이윤희
여교사
 강종욱 라옥아 기하경 김순진 김복순 김순원 김윤미 김영희 김옥순 김진선 마현미 문현정
 박순미 박연미 박효신 부경란 석경림 송영복 신명진 신영희 신호희 오준분 이경화
 이미경 이미화 이보영 이수연 이연실 이용주 이원정 이정덕 이정현 이현자 정경진
 지요정 최미원 최주영 한재순 허혜숙 황영림

소년부

부장 / 장승규 지도 / 이재영
 부감 / 홍성욱 김순임

남교사

권덕용 권혁원 문봉만 박진진 박찬선 박출만 양승복 오재일 윤석원 이동국 이명애 이상배
 이재학 이정성 이희영 장지란 조인영 한석연 허만선 허민성 홍 의

여교사

강여경 계서연 구명숙 김경희 김보옥 김순곤 김옥남 김은정 김세순 김정남 김현진 박연숙
 심인순 윤경희 이명주 이영희 이용표 이은경 이인숙 이혜진 이희분 강재복 정원임 정혜영
 조순남 주명숙 최상자 최옥숙 한경숙 허은혜 홍승연 홍현기

중등1부

부장 / 전은배 지도 / 김영훈
 부감 / 홍원석 윤숙희

남교사

권승룡 김명철 김일성 김태진 박성진 양현원 양현수 이광현 이상근 이윤복 이정진 이원주
 임병준 장현민 전종원 정병근 조덕영 조운재 조지용

여교사

박서연 김명숙 김상은 김진혜 김경순 김지희 김하은 라은현 유현실 박경옥 박미지 박수경
 박현순 오미영 오영선 유지연 이미숙 이선민 이윤은 이정은 이현주 이희순 임지선 장유하
 전보은 전혜선 정연희 최금강 한연숙

중등2부

부장 / 김신국 지도 / 여국근
 부감 / 박용기 김남희

남교사

김명훈 김상학 김아론 김종훈 김희동 문운수 박주영 박준규 배종락 백상의 유용호 윤병식
 윤병일 이광국 이태오 이우영 임병익 장기락 장동수 정달영 정진곤 조종현 한홍연

여교사

강영희 구자은 김선영 김진주 김영희 김진순 김혜진 박경진 연혜실 유명숙 이만영 이연희
 이재임 이정연 이진아 이혜란 전혜상 정선주 정주연 최영실 최윤경 홍종호 황은신

중등3부

부장 / 박승길 지도 / 김교성
 부감 / 엄복섭 한 숙

남교사

강희진 김우준 김진갑 남종호 문홍무 박성호 박도모 박정환 박관수 성대열 신재호 양효민
 이병두 이복희 이준희 장성근 장성호 정국용 하정수 현준봉

여교사

권신애 권지현 김내민 김달수 김옥진 김찬미 박순진 신향원 오광순 이정희 이혜경 정애선
 정은희 정현자 정혜영 조윤주 최선정 추민경 한성희 허다영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종환 지 도 / 안창덕
 서 기 / 임창식 회 계 / 진홍용

고등부

부장 / 구재완 지도 / 이상수
 부감 / 이보신 김경희 교역자보조 / 오경희 이규진

남교사

강신선 박원우 구승희 김경철 김규하 김대용 김일모 김영환 김용현 김재경 박종용 백봉진
 서상근 심재원 오상덕 유병규 윤민재 이민욱 이석훈 이상선 이영훈 이준환 장인희 조 효
 조현국 채홍표 최 울 최준호 최지용 홍승길

여교사

강이경 강복희 강혜숙 강영자 강현정 김경미 김선자 김수자 김지영 김창욱 김혜선 김화실
 마라나 민경나 박경희 박보란 박윤경 방미애 서은숙 성명선 손인순 송진경 양순옥 양희옥
 오민선 오숙영 이미애 이보담 이영숙 이우주 이현희 장남희 장인화 장경애 정경희
 정길선 정희공 조상미 진화은 최난희 한유리 한진숙 홍정애 박성희

대학부

부장 / 전계식 지도 / 안창덕
 부감 / 양기수 금옥연 부지도 / 이복순

교역자보조 / 백경실 이규진

남교사

김대현 김지호 노성현 염현민 이상석

여교사

김민정 김성화 최윤경

청년1부

부장 / 송두섭 지도 / 정진호 교역자보조 / 박경배
 부감 / 김태식 유순원 부지도 / 안태순

남교사

이재호 조종민

여교사

지아연

청년2부

부장 / 조종환 지도 / 김준희 교역자보조 / 이복순
 부감 / 김규식 김정숙

남교사

강해진 구성혁 김성현 김경진 김창송 김현철 박노의 박석산 박종운 서수길 윤상규 장세용
 장세준 장철환 정인옥 정재영 최낙은 최승민 최재필 홍기준 황윤성

여교사

권현주 김민정 김은경 김경선 김자은 김하경 김희선 박미향 박소연 박인정 서인순 석태임
 양은혜 이경현 이지영 이혜경 이희희 이희자 임현진 최희경

제3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구형 지 도 / 나광영
 서 기 / 박덕양 회 계 / 김승곤

장년부

부장 / 최지윤 지도 / 김익환
 부감 / 장길남 석귀수

남교사

강만호 강희정 김 광 김규용 박석복 박영섭 박찬욱 양병진 이재욱 이선홍 이양호 이용현
 임재봉 강영환 정재모 정동태 조종진 현승조

여교사

고명진 김금순 김복수 김진자 김영숙 김영아 김영옥 김영혜 김희영 김이자 김학선 남계순
 문현옥 배혜희 배태남 박현숙 배옥순 배영순 성지현 송해숙 안화순 윤경자 이경옥 이경남
 이정희 임동개 장옥순 한규자 한진숙 황선혜

장년2부

부장 / 박덕양 지도 / 이경준
 부감 / 신진길 조혜순

남교사

강종선 고수곤 권오준 김두선 남용술 박미련 박종태 박종현 신종식 열경자 유상태 이강근
 이동경 이인광 이진규 이호일 정재복 정창수 조성훈 최장남 최현구 한만규 한호철 함용식
 황학규 황현철

여교사

강경희 김경순 김군자 김금숙 김수자 김영숙 김경숙 김대수 박숙경 박차화 박종욱 박태순
 서화자 신소자 신정순 안정자 오명준 왕유남 왕진숙 유기순 유병순 윤옥자 윤인순 이금순
 이봉선 이상강 이혜자 이영자 임인영 정경희 정문태 정순이 조영숙 조인숙 지인숙 진화자
 차장숙 채혜선 한숙원 한숙원 한희희 허순자 허은숙 황주옥

장년3부

부장 / 이정우 지도 / 조규호
 부감 / 김연태 이혜숙

2005년 입문 명단

남교사	교재훈	권병철	김달현	박우현	송수일	안동수	이병영	정운환	조성래	최경하	최대환
강두형	교재훈	권병철	김달현	박우현	송수일	안동수	이병영	정운환	조성래	최경하	최대환
최차용											
여교사											
김성순	김연수	김재순	김준지	문경희	박명영	박희숙	서영남	안정희	안종남	안지영	양숙자
유금순	윤원희	윤준식	윤효남	윤필재	이명관	이미재	이서륜	이옥자	이형주	전방자	전신덕
정금숙	정정자	조복덕	조본자	조유수	하영자	한동열	한현덕	한혜림	황충일		

소망부

부장 / 김영길	지도 / 이태복	부지도 / 김연식
부감 / 문영귀	김 순	

남교사											
권영동	김성욱	김일중	김재순	김정배	남용철	문순훈	박순산	박효열	백종현	송한원	오춘성
윤상철	윤상철	이정재	이근호	이덕규	이상남	이정훈	이학봉	강용진	조상인	주재상	최용길
윤상철	윤상철	이정재	이근호	이덕규	이상남	이정훈	이학봉	강용진	조상인	주재상	최용길
여교사											
강인영	강정희	공정자	권예스터	권영애	김국자	김성도	김국기	김정수	김혜경	남명숙	남현숙
노희래	도우자	류상자	민정선	박경희	박근재	박영순	박은석	박일래	박정순	박경옥	변경심
서운숙	송정선	신정숙	양승남	염미숙	염숙현	오정남	유금현	윤정미	이재화	이한복	이현숙
이형숙	임근애	임정숙	장정애	장정숙	조숙진	최발순	최미자	최영옥	한재화	홍경숙	

사랑부

부장 / 김창국	지도 / 나광영
부감 / 조영철	정호진

남교사											
권오범	김진석	김동석	김동수	김무수	김수현	김은철	김정민	김정윤	김현인	김형민	박민호
박재민	박재민	신상성	오태석	유석희	이규원	이동철	이서재	이인규	이정택	장정호	정명호
장유재	조영호	조우현	조태현	조운현	최규현	최관영					
여교사											
강명숙	강혜숙	권경애	권정자	김경순	김경순B	김세영	김옥주	김윤경	김유숙	김재윤	김현아
문영숙	민정자	박금식	박명희	박혜숙	배한희	변예선	변혜자	서계실	석은영	손지영	송은혜
양명자	양영숙	염명숙	유승희	윤미경	이선경	이선숙	이유미	이유정	이현숙	이효진	임정순
장예교	장인식	전현선	정미현	정성미	정순숙	조경순	조명자	조순희	조은명	조한미	최민정
최수남	최지은	한정수	한옥자	한우진	홍희정	황옥엽					

에바다부

부장 / 신상수	지도 / 박인기
부감 / 윤명범	박부미

남교사											
김병권	김용태	김유식	김정근	김장수	박영진	박종관	박태진	변창태	안준호	오동혁	이태훈
전은수	정정래	정지호	최진현								
여교사											
강기일	김미애	김순숙	김순자	김준자	김희정	남미희	노지은	노효영	문성숙	민경주	박금희
박정애	변은경	안영희	양미숙	오미연	유기일	이재숙	이도연	이미숙	이영희	정선진	정순옥
정영미	정은진	조옥래	홍은숙	주영희	최유영	최은정	홍정애				

탁아부

부장 / 김승곤	지도 / 최문실
부감 / 정원근	전경금

남교사											
고광국	김소중	김재호	이규환	이상복	이영두	황인옥					
여교사											
갈지혜	강성자	강정자	강옥희	강정원	곽노숙	권필녀	권필순	김경아	김경희	김덕숙	김동순
김명숙	김보미	김옥자	김순자	김연숙	김영희	김순숙	김재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지애
김준식	김희진	나정순	남숙자	남숙자	민태남	박남이	박연숙	박순숙	박순숙	박순숙	박순숙
박정자	배귀녀	백옥심	변필수	설봉선	성순숙	조길순	송정숙	송준숙	신동숙	신순희	신순자
안숙자	양명희	오부희	오수옥	오승민	유영순	유옥현	유옥자	윤화진	이귀자	이경자	이경자
이계문	이미애	이영순	이보희	이수정	이순남	이영순B	이영순B	이혜주	이현주	임도화	장진옥
전옥이	정길래	정우현	조남숙	조성숙	차정민	전진경	최순경	최영숙	최은진	최종남	표복심
하말영	홍송희	홍양래									

새가족 운영관리실

새가족 등록실

부장 / 안동현	부지도 / 김말자	부감 / 이영숙					
등록 / 박효지	이인숙	강국원	남영순	홍명희	김영은	정혜영	추민경
통신처장 / 유정자	통신 / 박영옥	이월산					
서기 / 조윤성	부서기 / 김충현						

새가족양육부

부장 / 권명옥	지도 / 위건광	부지도 / 이수경
부감 / 박성명	김은심	

남교사											
강태영	김종조	노승열	노경화	류태준	박광식	배성준	신문중	유종석	이동준	이병두	이상근
이인용	이준식	이진규	이희철	장용희	정금수	정금수	조종덕	권두산			
여교사											
강기정	강순희	고길순	고진순	권향림	김명주	김명희	김순권	김영락	김용숙	김은숙	김은희
김현정	남정애	박옥자	박현희	방유정	손은숙	신인숙	양순자	임정림	오미라	오혜숙	황순희
이복옥	이소규	이승연	이인숙	이정화	이현숙	정복득	정연옥	조한길	주미아	지아연	지영순
차옥진	채미숙	홍정선	황 향	황명숙							

전도위원회

위 원 장 / 이형수	지 도 / 류병희
서 기 / 정태두	회 계 / 박철규
위 원 / 김영길 이갑재 한송규 김영수 이계인 권명옥 배준식 함철주	
간 사 / 윤상철 설진희	

전도부장 / 이형수

실행위원 / 김철환 양효민 이인영 장철규 오순도 조준옥 강남식

남녀전도부장 / 이계인

실행위원/		남전도회연합회장/이영환				여전도회연합회장/김정희					
전담진	한현식	강호원	김종훈	안상식	이귀숙	김해림	홍성옥	심화민	정영덕	윤우선	최준호
이인호	박종태	김우주	한관희	박민호	김은희	김정순	반연숙	방유정	전현선	김연홍	조종순
강혜경	이영숙	박계일	임정숙	변경희	이혜수	강정일	김남식	이경자	한영덕		

전도회 회장 /

교구	바 울 / 베드로 / 요 한 / 한 나 / 에스더 / 루디아 / 마리아
1	전담진 이승계 홍순길 이근덕 김은희 김경숙 이혜경
2	이영환 박상대 위길호 김유정 김성순 이명옥 안정민
3	한현식 김옥진 장기락 김정림 반연숙 홍은기 김미연
4	이병근 강호원 송준식 방유정 이영숙 마현미 신관호
5	이동경 김종훈 공병식 성순진 전현선 전재숙 이정희
6	안상식 고재훈 오춘성 김근자 김연홍 황순환 이현숙
7	표향철 이귀숙 김 근 이규숙 조종순 윤 희 박선아
8	김해림 남송숙 하정수 유병순 김용숙 강혜경 최희경
9	홍성옥 양효민 김창용 김소신 이영숙 오광순 최향숙
10	심화민 오혜실 김종식 서계실 박계일 오은경 이신남
11	김인숙 정영덕 안도영 이경원 임정숙 김세화 홍혜선
12	윤우선 이종원 이양선 변경희 이영순 이예영 이신향
13	최준호 김종민 문우식 이혜수 지인숙 강용숙 강소영
14	이인호 윤혜균 정동영 강정일 손선혜 강복희 임미순
15	박종태 최홍심 김성진 이문구 표복심 이정화 조옥자
16	정달영 구창희 김재호 이경자 한숙정 임홍숙 장인실
17	한관희 민문기 이상관 한영덕 김정원 최경숙 양은혜
18	박민호 박재현 김동수 송숙현 김경희 박경숙 지정민

직능전도부

부장 / 권명옥	차장 / 이인광	실행위원 / 장용희	임복심
----------	----------	------------	-----

군전도회	회장 김병만
경철전도회	회장 황재현
실업전도회	회장 김형근
이미음전도회	회장 이남숙

전도훈련부

부장 / 한송규	차장 / 신홍한	실행위원 / 김재명
----------	----------	------------

2005년 일꾼 명단

충천전도대

대장 / 배춘식 차장 / 유상태 실행위원 / 이연실 이금숙 이현숙

선교위원회

위원장 / 전홍렬 지 도 / 정현민
 서 기 / 안석현 부지도 / 김교성
 부서기 / 김창국 회 계 / 김연근
 외선부 부장 / 안석현 외선부 지도 / 여극근
 외선부 부지도 / 권영일 오철용 김지훈 김민철 배지마 이진숙
 외선부 실행위원 /

이남숙 이신동 신동식 정옥임 이영환 이정현 정혜현 김윤환 이순자 홍근영 송지훈
 장성재 강창식 김형미 이영우 소양식 김홍룡 이희선 배지혜 김효주 김철환 이순자
 정미숙 이원실 조수진 손은희 양미숙 김대은 태갈라나 윤해명 최경일 강현주 김예라 손진도 김유희
 박은영 박영송 안지훈 장종용 박재일 황성준 윤해관 장병준 김원재 강지희 반유근
 임광선 노수식 권영진 김승희 박상성 한수정 이향선 이성섭 김병상 이연재 이득해 신교선
 천상현 김재윤 윤인준 원상수 전은수 언덕호 이두원 김도희 허주은 현명희 조영규 김석영
 황장미 김철남 이경미 유경선 정혜선

단기선교부장 / 전홍렬
 의료선교부장 / 엄필성 선교훈련원 부장 / 전홍렬
 위 원 / 김진호 엄필성 이 훈 이종석 진홍용 원용철 김구형 최윤덕 정선현 김창국

기획분과

분과장 / 김창국

실행위원 / 차 장 : 송두섭 표왕열 김을필
 문경안 이상돈 조종민 이호식 이수자 이소규 장숙자 박광식 김진갑 이강근 강호원 문호식 박예희 이현숙
 서옥선 강혜재 조주진 김명성 정옥임 윤숙희

선교기도팀 /

이수자 김성이 강진숙 박영자 전성실 윤효남 최수자 이명옥 반정현 김지현 안화선 김영구 박종영 김집도
 허인순 조윤숙 안경자 장순옥 서옥선 조영희 안수자 권연숙 이금순 김연용 이연실 여선자 홍복기 민행남
 김홍용 김철남 장숙자 박윤식 이남숙 이남숙 박재일 이광남 박재일 오명운 김복수 장세복 배순명 정주한
 이서훈 전순순 김숙자 김혜경 강인영 김경희 임경희 이경숙 이영순 김영희 이해수 박원순 이인숙 최영순
 이숙희 이수희 이경희 노광희 서혜경 김태숙 김동주 유기진 유정선 임종옥 최양숙 김영희 조정숙 김영선
 김금숙 전유강 김필숙 강영자

진행분과

분과장 / 원용철

실행위원 / 차 장 : 김진국 신광열 김태식
 권병철 엄필성 김현철 최세진 윤숙희 김창국 황순란 이애영 정옥임 안정희 고희란 이선민 이교은

관리분과

분과장 / 정선현

실행위원 / 차 장 : 김형곤 조문수
 전종일 최종순 임연수 원준봉 이상집 장석은 남중호 태갈라나 파현구 이호근 이병희 김이란 박유진 최윤화

훈련분과

분과장 / 김연근

실행위원 / 차장 : 전계식 전은배 동방용운 이상석
 채홍표 강호원 박종용 박원희 이종희 이복희(가) 구원실 이부성 이영희 김인숙 강종목 양승길 이훈우 오순도
 김중성 송영준 최만우 장영환 양한원 최남하 이정희 홍승길 이신도 조영구 이종민 김달현 김홍기 정영래
 강용희 장광길 이인광 이용현 이세영 김현배 김명성 남용철 지영순 김수인 박현주 정혜현 조유미 유재혁
 이복희(해)

지원분과

분과장 / 최윤덕

실행위원 / 차 장 : 장승규 김규식 권 철
 윤종국 문연식 김지호 김지훈

의료선교부

부장 / 엄필성

실행위원 / 차장 : 최민석 총무 : 안세현
 김홍희 김윤수 이세영 박석산 오윤숙 김경태 조한주 김혜원 오필선 김경희 유순원 정진선 이우주 박 정
 이동옥 유지성 김수정 정은미 이시라 이상용 이형남 이상은

봉사위원회

위원장 / 김영달 지 도 / 김용덕
 서 기 / 김창국 회 계 / 이달옥
 위 원 / 김영길 이태식 정태두 신상수

구 제 부

부 장 / 고재송
 실행위원 / 이호일 오순도 구원섭 조석구 문연식 이영자 오달녀 임정희
 김형태 장순태

차량안내부

부 장 / 함철주 지 도 / 김용덕
 차 장 / 허명호 박창식 총 무 / 추병장
 실행위원
 허명호 박창식 이인광 추병장 박호용 박영기 윤석규 김원호 이인수 박원희 윤선한 김종성
 김명성 공석생
 부원
 권태선 김낙홍 김동완 김봉중 김이경 김영관 김영연 김계기 김경태 김종규 김종민 민명옥
 박기철 박순규 박세빈 박중순 박형관 박형태 박순환 성 중 신환식 신현옥 엄창근 우기길
 이병근 이상철 이송구 이상규 이우형 이재철 이창권 이창민 임길순 임동태 장동규 장영환
 정문호 전진안 전수상 정승진 주낙진 최진성 최희송 한용택 한준구 김원규

재난구호봉사대

대 장 / 박철환 부 대 장 / 박성명 이순자 총 무 / 조종진
 실행위원 /
 고순관 권병철 김철환 명경옥 문연식 박광자 박승길 신영순 양한원 오순도 오화자 왕유남
 장진숙 유효순 이경환 이인광 이인영 이호일 장용희 정철규 조창훈 최경남 한영덕 허명호
 홍건진

호스피스회

회 장 / 김창국

실행위원 / 박태진 박연숙 이연실 장세복 황순란 김은심 이연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 당희창

위 원 / 노광현 김은호 이 훈 이종석 진홍용 전홍렬 김단용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 이종석

서 기 / 정선현 지 도 / 여극근
 회 계 / 원용철
 위 원 / 김지철 이 훈 이창호 김광남 이갑재 전홍렬 김한기
 실행위원 / 이호일 문영규 김태식 임연수 이경재 최민석 백봉선

교구위원회

위원장 / 김은호 지 도 / 이종대
 서 기 / 장철환 회 계 / 김한기
 실행위원 / 임연수 이수자 김지은

1 교구

교구장 : 이계인 지도 : 고광환 부지도 : 정연희 남간사 : 정창원 여간사 : 이정미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국기1	최세진	김은희	김창기	서혜정	김경숙 김경수	정희선 정옥화 김상희 이명희
	국기2	최세진	김은희	김창기	정옥화	정희선	
	국기3	최세진	신영자	김창기	최명옥	김상희	
02	국기4	이보신	유정자	최재열	전옥순	이금영	우병희 김경숙 신명주 송은화 김경순 김경희
	국기5	이보신	김국자	최재열	우병희	김경숙	
	국기6	이보신	김국자	최재열	김경숙	신명주	
03	충천1	구원실	조연숙	장종래	임문자	임문자	최송자 최송자 김경순 박경희
	충천2	구원실	최신자	장종래	송은화	최송자	
	충천3	구원실	최신자	장종래	최은희	김경순	
04	충천4	구원실	김성자	장종래	문영숙	박경희	송은화 임유선 김승희 이정현 이순희 최원숙
	목양1	윤선한	장신순	장정원	송은화	장명숙	
	목양2	윤선한	장신순	장정원	임유선	장명숙	
05	목양3	윤선한	안경자	장정원	김승희	이정현	이순희 이순희 최원숙
	언주1	양한원	김희술	이찬재	이정미	이순희	
	언주2	양한원	강옥희	이찬재	강 옥	최원숙	
06	언주3	양한원	송정옥	이찬재	곽노경	최종란	최종란 남주옥 최자영
	언주4	양한원	이현숙	이찬재	이경순	최종란	
	역삼1	김대용	정상순	홍순길	신명자	남주옥	
	역삼2	김대용	백영자	홍순길	이숙희	최자영	

2005년 입단 명단

07	역삼3 김대웅 장진옥 홍순길 김병자 김은자	역삼4 김대웅 장성배 홍순길 이수진	상록1 이부성 이수자 김승규 이희광 최승근	상록2 이부성 이수자 김승규 심호섭 이경자	상록3 이부성 이수자 김승규 임태수 김영란 심인순
08	한서1 김용조 정복득 최승민 이국숙	한서2 김용조 홍경진 최승민 태원희	한서3 김용조 황진순 최승민 이혜경	한서4 김용조 이근덕 최승민 김희순	대해란1 이송계 양상삼 김성탁 백인숙
09	대해란2 이송계 남정자 김성탁 오승민	대해란3 이송계 양선자 김성탁 김희수	대해란4 이송계 노정자 김성탁 김경례	교역자	
14					

2 교구

교구장: 김의철 지도: 이종대 부지도: 김정연 남간사: 최현구 여간사: 신정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미성	박상대	안경희	김 장	김옥선		
	현대1	박상대	이우형	김 장	김성은		
	현대2	박상대	박영숙	김 장	심인주	이순민	
	한양1	박상대	윤정희	김 장	박현숙		
	한양2	박상대	조혜순	김 장	안종남	김미영	
02	청담1	문홍무	김경성	김동철	장문자	노희배	
	청담2	문홍무	정명실	김동철	오미영	황은미	
	청담3	문홍무	안정자	김동철	오신희		
	AID	문홍무	구자남	김동철	오숙영	임윤숙	
03	삼성1	박장서	심효숙	최한태	이명희		
	삼성2	박장서	이한복	최한태	김영희		
	삼익	박장서	이정자	최한태	주은희	시경희	
	해청	박장서	김승배	최한태	이명옥		
04	선릉1	이영환	김은숙	김지철	김성자		
	선릉2	이영환	김영아	김지철	최수자	차영신	
	학동	이영환	전성실	김지철	이재숙	김영희	
05	경북1	정은환	박효지	최현구	김유정		
	경북2	정은환	최진화	최현구	신경희		
	관세청	정은환	문인란	최현구	유승원		
	이화	정은환	안경덕	최현구	황정희		
06	양지1	김문섭	김성순	위길호	최근준	최명희	
	양지2	김문섭	김성자	위길호	조윤정		
	양지3	김문섭	홍경숙	위길호	유복신		
	공무원	김문섭	유일옥	위길호	김영자		
07	논현1	이상배	정은숙	조종원	한재순		
	논현2	이상배	박노희	조종원	윤금남	정화순	
	논현3	이상배	백영기	조종원	고금신	조순남	
	논현4	이상배	정복순	조종원	박옥자		
08	논현5	이정대	노소숙	이상배	윤순		
	논현6	이정대	권경자	이상배	김명순		
	논현7	이정대	김순숙	이상배	김선미		
	논현8	이정대	정길자	이상배	이옥자		
	논현9	이정대	김순실	이상배	김미연		

3 교구

교구장: 이종석 지도: 김용덕 부지도: 윤인숙 남간사: 박종철 여간사: 김애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대치1	최남하	반정연	김옥권	박희수	송희명	
	대치2	최남하	이득혜	김옥권	김기남	김은주	
	대치3	최남하	노보민	김옥권	차옥진		
	대치4	최남하	김순자	김옥권	이규숙	전우혜정	
02	대치5	김희선	김예순	유동호	함정숙	강명옥	
	대치상정	김희선	김종자	유동호	최종란	박경숙	
	청일	김희선	김효순	유동호	정미순	이혜영 박선향	
	도곡경남	김희선	반연순	유동호	김영구		
03	대림1	허만선	김정미	박종철	박재영	유은희	
	대림2	허만선	김명희	박종철	홍은기	박찬숙	
	미도1	허만선	송순자	박종철	이미애	이옥경	
	미도2	허만선	정은희	박종철	구혜연	김숙자	
	신경우성	허만선	정은희	박종철	정재선	김미정	
04	쌍용우성	김성호	한정순	최종순	이희자	고순덕	
	은마1	김성호	박정란	최종순	오정림	안혜영 이진숙	
	은마2	김성호	정문대	최종순	이혜경	강관순	
	은마3	김성호	정문대	최종순	김혜경	안현남	

05	동신우성	이경재	정정자	김희동	김보옥	김미연
	력기1	이경재	김지현	김희동	한소숙	이명숙 이현배
	력기2	이경재	김지현	김희동	안화순	이상미
	력기3	이경재	김인자	김희동	이봉선	김정숙
06	한신	정창수	김효순	최광현	이정애	유영숙
	삼익	정창수	염경자	최광현	임현숙	이정희
	삼호	정창수	염경자	최광현	강영경	설진희
	진달래1	정창수	한정희	이은식	김정자	오영화
	진달래2	정창수	허종숙	이은식	이봉선	최연선
07	개나리1	문영규	김용섭	김용섭	남영순	임길경 강영숙
	개나리2	문영규	허종숙	김용섭	성명선	박정애 부경란
	개나리3	문영규	김계희	황재현	윤원자	
	개나리4	문영규	김계희	황재현	구명숙	임승남
	성보	문영규	유영자	황재현	김재자	

4 교구

교구장: 김구형 지도: 류병희 부지도: 신동자 남간사: 이홍우 여간사: 박미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잠실1	이상식	전병파	채종표	강경순	이효순	
	잠실2	이상식	홍화숙	채종표	황영림	유미향	
	잠실3	이상식	유영순	조한주	마리나	김정옥	
	잠실4	이상식	유영순	조한주	신관호	이 정	
02	반포1	오순도	안규자	구성희	마현미	유춘남	
	반포2	오순도	김석윤	구성희	김영은	구명남	
03	반포3	박인화	황주희	강호원	김정숙	김정숙	
	반포4	박인화	황주희	강호원	이미정	오지현	
	반포5	박인화	이은희	강호원	오기봉	김정숙	
04	가든1	신광철	박종영	안유환	김관희	안소영	
	가든2	신광철	구인숙	안유환	조영란	김정래	
	한양	신광철	이금숙	안유환	이영순	이우영	
05	미도1	문효식	이순현	안연식	김신애	박해영	
	미도2	문효식	이순현	안연식	박복숙	홍애자	
	서래	문효식	신자식	안연식	심영희	박소복	
06	방배1	최민식	김성도	이인용	곽다관	오명자	
	방배2	최민식	김성도	이인용	이향선	이옥자	
07	방배3	유종석	이영영	장철환	김화정	노재희	
	방배4	유종석	김옥순	장철환	김명진	김태옥	
08	방배5	박우현	허은숙	노정화	신혜옥	주미아	
	방배6	박우현	백순자	노정화	조윤숙	안순복	
	방배7	박우현	방유정	박종훈	윤경자	홍정숙	
09	우성	이희우	정정자	선명환	임명희	이미란	
	우성2	이희우	이진애	선명환	이향선	전명금	
	신동아	이희우	한기희	선명환	전혜숙	장동경	
10	삼호	류기명	김옥래	이홍기	황 창	허정숙	
	삼호1	류기명	이영숙	이홍기	정순자	김정희	
	삼호2	류기명	이상옥	이홍기	이미주	하지연	
11	삼호3	신신길	조용기	송남석	강순	조연숙	
	삼호4	신신길	이영숙	송남석	이종희	유영자	
	삼호5	신신길	이영숙	송남석	윤순자	강정희	
12	서초1	권오준	박인자	유형근	김순재	이유성	
	서초2	권오준	허인순	유형근	권경자	이명숙	
	서초3	권오준	이순숙	유형근	이수인	조숙임	

5 교구

교구장: 안석현 지도: 이성진 부지도: 이옥주 남간사: 박종현 여간사: 임복례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우면신원	김윤환	전현진	최우근	홍재경	홍성순	
	양재우성	김윤환	차 희	최우근	김진숙	정귀미	
	양재1	김윤환	채재진	최우근	김화도	박신자	
02	양재2	장석윤	성춘순	임희준	백애순	김의진	
	양재3	장석윤	성춘순	임희준	강은미	주복임	
	포이1	장석윤	김지현	임희준	김인정		
03	포이2	김종훈	이연순	박종훈	권미숙	류명희	
	시영	김종훈	이연순	박종훈	최은희	임학신	
	개포현대	김종훈	김숙옥	박종훈	강태연	정연희	
	경남우성	김종훈	김 순	박종훈	김희선	정명자	
04	개포1-1	정태동	유현순	정진곤	문성재	박영희	
	개포1-2	정태동	박영희	정진곤	전계숙	김경남	
	개포1-3	정태동	하두연	정진곤	조영희	이규자	
05	개포2	박복선	이순자	노규식	임복례	고숙희	
	개포3	박복선	장순옥	노규식	이명애	황방자	
	개포4	박복선	김현순	노규식	최옥희	임순애	
06	개포5	김달현	김양자	양승길	김미리	변인원	

2005년 입권 명단

	우성현 개포대지 일원1 일원2 일원도지 상록수푸른	김달현 김달현 전종일 전종일 전종일 전종일	김영혜 안정자 서정자 서정자 김희자 김영숙	양승길 양승길 최동식 최동식 최동식 최동식	안순옥 강윤옥 장금자 장금자 이영희 유현숙	정순진 곽재자 유동숙 조옥련 현광자 조경순 이주자
07	목련1 목련2 수서1 수서2 수서3	양기수 양기수 양기수 양기수 양기수	함자옥 함자옥 김성희 김성희 이해주	전병우 전병우 전병우 전병우 전병우	이복옥 박병순 김성희 김성희 최경옥	김현자 오경숙

06	김동1 김동2 명일 고덕1 고덕2	조종덕 조종덕 조종덕 조종덕 조종덕	홍양래 김형숙 유금래 이경자 민행남	윤용현 윤용현 윤용현 윤용현 윤용현	이현숙 장숙희 서미미 김경아 채병배	강윤경 송윤임 최미경 황 자 이명화 박경진 설분식
07	하남 광주1 광주2 광주3 이천	이인광 이인광 이인광 이인광 이인광	최수진 최병초 최병초 최병초 최병초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	신영희 김지영 공윤향 최정원 김형숙	최정원
08	관리	이인광	홍현숙	조종민		

6 교구

교구장: 고재승 지도: 이희식 부지도: 김말자 남간사: 김영주 여간사: 권연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우성1 우성2 우성3 선수촌	박광식 박광식 박광식 박광식	김은덕 김은덕 김은덕 김은덕	이계옥 이계옥 이계옥 이계옥	김두순 심근숙 이순애 김미열	장혜선 최옥자 곽노숙	
02	잠본1 잠본2 잠살5-1 잠살5-2	김규석 김규석 김규석 김규석	김영민 오경희 김연홍 김연홍	장경옥 박영옥 육미자 심영숙	정운신 박영옥 육미자 심영숙	위갑순 이광선 김순자	
03	삼전1 삼전2 삼전3 가락	이병두 이병두 이병두 이병두	박철순 김운식 김운식 김운식	최용길 최용길 최용길 최용길	조연이 오세은 허준화 양옥자	이민진 윤금자 윤영희	
04	석촌1 석촌2 송과1 송과2	염복섭 염복섭 염복섭 염복섭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송한천 송한천 송한천 송한천	이현숙 김옥순 정옥림 박낙산	안정희 김옥순 정옥림 박낙산	
05	송과현양 방이1 방이2 가락우성 가락쌍용	이세영 이세영 이세영 이세영 이세영	김준자 김준자 김준자 김준자 김준자	박낙산 박낙산 박낙산 박낙산 박낙산	이명숙 이순기 황순란 김민덕 최종미	서윤숙 강금순 김수열 고희란 노계운	
06	해미리1 해미리2 건영 문정 장지 거여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김병수 김병수 김병수 김병수 김병수 김병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유재원 이필순	
07	오금1 오금2 오금3 상아	안상직 안상직 안상직 안상직	정호진 정호진 정호진 정호진	한용택 한용택 한용택 한용택	조경숙 김은주 이미랑 윤자옥	이정화	
08	관리	안상직	이화자	한용택	권연숙		

7 교구

교구장: 임창식 지도: 장 훈 부지도: 조옥자 남간사: 조종민 여간사: 김형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풍남1 풍남2 풍남3 풍남4 강미1 강미2 진주 울림패1 울림패2	송두섭 송두섭 송두섭 송두섭 최대환 최대환 최대환 최대환 최대환	조영자 명정숙 박영일 김계숙 윤수원 김진숙 여신자 이규숙 조준옥	이재호 이재호 이재호 이재호 강진석 강진석 강진석 강진석 강진석	김지선 강화숙 정상화 박석아 황정미 김경숙 김숙자 장남희 김경희	안현정 강미영 권영남 임봉숙 임현조 전영경 곽경숙 최원희 김예성	
02	상내1 상내2 둔촌1 둔촌2 둔촌3 둔촌4	신용환 신용환 신용환 신용환 신용환 신용환	이계문 김은심 유선덕 이영주 이신동	이귀옥 최미자 이귀옥 이귀옥 이귀옥	이연철 최미자 황명숙 김옥연 이경애	김희남 이미숙 박 정 허윤순	
03	천호1 천호2 천호3 천호4 천호5 천호6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배귀리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황은선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김순옥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04	천호1 천호2 천호3 천호4 천호5 천호6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배귀리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황은선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김순옥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05	천호1 천호2 천호3 천호4 천호5 천호6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배귀리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이신동	황은선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김순옥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박수정	

8 교구

교구장: 김중선 지도: 김준희 부지도: 김영순 남간사: 김윤희 여간사: 박은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중곡1 중곡2 중곡3 군자송정	김철남 김철남 김철남 김철남	조복덕 왕진남 김순련 신영순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이흥옥 박순희 황호진 현규자	강정희 박순희 이영희 정대순	
02	구의1 구의2 구의3 구의4	주병장 주병장 주병장 주병장	김철남 김영자 김해길 김해길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김정희 김해길 김해길 김해길	박은주 신정숙	
03	위커힐 극동 강변우성 자양1 자양2 자양3	박승길 박승길 박승길 박승길 박승길 박승길	김용숙 최경희 조은신 김영미 김종홍 김종홍	정철석 정철석 정철석 정철석 정철석 정철석	김수남 송영자 고상숙 이인숙 박준근 박준근	최명숙 황자란 장수혜 배순명 배자아 한현수	
04	노유 성수 화양 복익 복산 마강	백종현 박종현 박종현 박종현 박종현 박종현	오덕수 한용배 한용배 한용배 한용배 한용배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송문식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05	왕십리 행당1 행당2 용봉2	최자용 최자용 최자용 최자용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06	금호1 금호2 금호3 금호4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연화숙 이윤자 한정희 이윤자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07	금호1 금호2 금호3 금호4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연화숙 이윤자 한정희 이윤자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08	금호1 금호2 금호3 금호4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연화숙 이윤자 한정희 이윤자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09	금호1 금호2 금호3 금호4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연화숙 이윤자 한정희 이윤자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전귀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9 교구

교구장: 김현기 지도: 정성영 부지도: 류진희 남간사: 김상철 여간사: 정옥련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용두 정창리 담심리 전노	동방용운 동방용운 동방용운 동방용운	이화자 이남숙 김정희 유현숙	김명성 김명성 김명성 김명성	김미경 최순실 김정란 최향화	김명순	
02	공릉 중계1 중계2 중계3	조종광 조종광 조종광 조종광	김혜선 황순화 유영희 유영희	고광국 고광국 고광국 고광국	김호선 오광순 김현진 한 소	김정성	
03	월계1 월계2 하계1 하계2	이상복 이상복 이상복 이상복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양희옥 한영숙 이명재 최정화	김정성	
04	이문 목1 목2 목3	정재모 정재모 정재모 정재모	김순선 김순선 김순선 김순선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한 소 유은선 임난향 백혜옥	김정성	
05	만곡1 만곡2 만곡3 만곡4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한 소 유은선 임난향 백혜옥	김정성	
06	상봉 상봉 상봉 상봉	오재일 오재일 오재일 오재일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정재복 정재복 정재복 정재복	김정성		

2005년 입문 명단

신내	오재일	김종순	정재복	이계록		
교문	오재일	강옥련	정재복	이영숙		
수택	김연태	배옥순	최영민	김원숙	박명자	
도동	김연태	박현숙	최영민	백난희	김명희	
덕소1	김연태	김현미	최영민	박귀자		
덕소2	김연태	이정남	최영민	장대현		
마석1	홍성욱	강동화	정문호	정옥련		
마석2	홍성욱	정금자	정문호	정옥련		
장현	홍성욱	정진녀	정문호	전순희		
정학	홍성욱	김연숙	정문호	예정숙		

후암울산	박성명	김영숙A	이선만	문경숙		
동이촌1	박성명	김영숙B	이선만	임정숙		
동이촌2	박성명	이경현	이선만	김세향	김정애	
자하	김인술	문병애	강종묵	엄정자		
평창	김인술	윤재선	강종묵	변애선		
해화명문	원길자	강종묵	강종묵	유홍자	김영자B	
돌소	김인술	박소옥	강종묵	신조자		
창신	김인술	이인자	강종묵	최소희	김순연	
승인	김인술	경홍옥	강종묵	정영숙	김숙자	

10 교구

교구장: 최지운 지도: 안치원 부지도: 홍순애 남간사: 이흥수 여간사: 정숙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의정부1	박태진	경정희	윤인준	박태진		
	의정부2	박태진	문경희	윤인준	투일관		
	의정부3	박태진	이강자	윤인준	이현주		
	의정부4	박태진	양영자	윤인준	유유순		
	의정부5	박태진	박효순	윤인준	조성옥		
02	도봉	장영환	최순	신현숙	황이지		
	방학	장영환	정순이	신현숙	김우영		
	쌍문1	장영환	김진연	신현숙	오인숙		
	쌍문2	장영환	김경순	신현숙	임소숙	박향란	
	쌍문3	장영환	신소자	신현숙	최지숙		
03	상계1	김영목	박효순	이양호	정순화		
	상계2	김영목	이은자	이양호	김복수	김연숙	
	상계3	김영목	오명준	이양호	김재순		
	상계4	김영목	박예희	이양호	정희숙		
04	상계5	조영철	박재임	김현배	정영자		
	상계6	조영철	박재임	김현배	오혜옥	권순화	
	장동1	조영철	남은희	김현배	최영애		
	장동2	조영철	이현진	김현배	오은경		
	변동	조영철	조옥환	김현배	김달수		
05	수유1	김경환	김재순	주낙진	주영심	최희순	
	수유2	김경환	김재순	주낙진	윤보림		
	미아1	김경환	함미자	주낙진	김원아	강정진	
	미아2	김경환	정영배	주낙진	박정인		
06	정릉1	강만호	박영엽	황현철	박정인		
	정릉2	강만호	신은수	황현철	조재만		
	길음	강만호	김해숙	황현철	김유배	박재경	
	돈암	강만호	은필래	황현철	최영실		
07	동소문	심화민	서계실	노명남	양소숙		
	한신	심화민	박영엽	노명남	김정숙		
	삼선1	심화민	전신덕	노명남	장세복		
	삼선2	심화민	신인순	노명남	신금순		
08	종암	노대경	이성록	김기홍	지영준		
	장위	노대경	이성록	김기홍	임창순		
	원곡	노대경	백숙자	김기홍	강석분	김희숙	
	강북	노대경	이순남	김기홍	정숙자		

11 교구

교구장: 장철환 지도: 니광영 부지도: 최문실 남간사: 이정록 여간사: 태명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인현	김종만	정주환	박진희	남숙자		
	오장	김종만	윤신자	박진희	지아연		
	윤지	김종만	조소금	박진희	이경자		
	광희	김종만	양명희	박진희	양명희	박순혜	
	장충1	김종만	김준지	박진희	박부자	윤수진	
02	장충2	김철환	태명자	문원훈	유옥자		
	필동1	김철환	안용녀	문원훈	권준희		
	필동2	김철환	안소현	문원훈	김두연		
	필동3	김철환	이서림	문원훈	안수연		
03	신당1	장경수	김순옥	최승철	이선숙	박복순	
	신당2	장경수	윤성식	최승철	유지숙	문금란	
	신당3	장경수	변현숙	최승철	심영순	조영미	
	신당4	장경수	한정옥	최승철	장선자		
04	남산다온1	박찬서	장순자	김봉화	옥금주		
	남산다온2	박찬서	이은단	김봉화	옥금주	김희영	
	남산다온3	박찬서	권정희	김봉화	이시은	주화영	
05	이태원	박효용	박신자	이동섭	배연식		
	한남	박효용	전순순	이동섭	김희숙		
	보라	박효용	박신자	이동섭	표정자		
	청과	박효용	김순오	이동섭	천은송		
06	도원	박성명	김재명	이선만	장철자	박명란	

12 교구

교구장: 원용철 지도: 최성규 부지도: 한영준 남간사: 김양준 여간사: 이성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불초	경영래	남희	김인희	김일희		
	갈현	경영래	윤옥자	김인희	김태금	강영희	
	유암	경영래	최순자	김인희	이옥자	박혜경	
	역대	경영래	백옥심	김인희	장진영	이연재	
02	용구	조문수	이미애	최경하	나영실	최은경	
	독립문	조문수	고금자	최경하	이성숙	이희경	
	신촌	조문수	안정숙	최경하	유정자	성경미	
	홍원	조문수	김정자	최경하	김경희	고희선	
03	통인	강창식	김경희	이선홍	이금수	고미숙	
	북성	강창식	윤정희	이선홍	임신자		
	복사현	강창식	변경희	이선홍	한애연		
	가좌	강창식	박용순	이선홍	백정숙	김윤희	
04	도화	정원근	신일순	남중호	이애영	원혜영	
	공덕	정원근	권순애	남중호	조순연	서명숙	
	서삼	정원근	최금자	남중호	노혜경	이소희	
05	무현	지규성	최태옥	정세용	이순자		
	소만	지규성	김재순	정세용	김정화	서광옥	
	마두	지규성	김문자	정세용	윤숙희	이선옥	
	호수	지규성	이규숙	정세용	양영숙	최옥자	
06	후곡	이성섭	이규경	박찬옥	이영순		
	방가시	이성섭	이준자	박찬옥	박복순		
	중탄	이성섭	최금실	박찬옥	김금혜	안정숙	
07	문촌1	이양선	김영희	예정호	신동미	강인영	
	문촌2	이양선	양명자	예정호	전옥란	김순일	
	교하	이양선	김소배	예정호	문현옥	이신향	
08	화정1	이병영	조영혜	김양준	임정숙		
	화정2	이병영	이혜자	김양준	김옥자	이순희	
	벽제	이병영	김금순	김양준	김문정	정정숙	
	원당	이병영	전정자	김양준	한금자		

13 교구

교구장: 배준식 지도: 김익환 부지도: 한성일 남간사: 장철규 여간사: 박숙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화곡1	임연수	안숙자	정준	이현옥		
	화곡2	임연수	김덕숙	정준	손유비	이영숙	
	화곡3	임연수	김덕숙	정준	이영순		
	신월1	임연수	정금숙	정준	박희숙		
	신월2	임연수	정금숙	정준	김동순	양행자	
02	등촌1	강신천	석귀수	이철	전인일	강은숙	
	등촌2	강신천	김경자	이철	전은실		
	염창	강신천	심영미	이철	정정금		
	가양	강신천	이영자	이철	이순자		
03	방화1	최정남	정영혜	조윤준	이경옥		
	방화2	최정남	정영혜	조윤준	정미자		
	김포1	최정남	최태옥	조윤준	김위자	이희연	
	김포2	최정남	양소남	조윤준	신성미		
04	삼곡	임태봉	홍문숙	김나홍	배영숙	박미혜	
	역곡	임태봉	이춘일	김나홍	박성남	이광주	
	중동	임태봉	조윤필	김나홍	이보희	손진숙	
	상동	임태봉	최영순	김나홍	김금숙	오정희	
05	원미	김재춘	고명진	김동식	함진숙		
	고강	김재춘	김은영	김동식	김명진	정은숙	
	원풍	김재춘	박은숙	김동식	오부파자	전옥이	
06	자전	강진덕	임원실	박명근	강소영		
	계산	강진덕	정순옥	박명근	김영희		
	산곡	강진덕	박영선	박명근	정금순		
	부평	강진덕	은성신	박명근	박연자	전화자	
07	가좌	권영주	이정순	양승복	이정순		
	만수	권영주	이혜수	양승복	장홍숙		
	구월	권영주	정성자	양승복	함명순		

2005년 일꾼 명단

안천 권영주 지인숙 양승복 이정수

14 교구

교구장: 신상수 지도: 조규호 부지도: 강덕필 남간사: 박석두 여간사: 김병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여의도	조홍진	오화자	김일생	한경희	임미순	권찰
	문래	이형숙	김일생	한경희	임미순	이규자	
	당산	조홍진	이숙희	김일생	한경희	최현주	권찰
	양명	조홍진	강순희	김일생	채자연		
02	목1	강만수	신정순	배종택	한연숙	정은주	권찰
	목2	강만수	오훈실	배종택	박귀국	최미경	
	목3	강만수	김영미	배종택	김병희	이선민	권찰
	목4	강만수	이정애	배종택	이진주	이해숙	
03	신길	이정택	김경애	이인호	강성자		권찰
	대림	이정택	유금열	이인호	박현순	박정윤	
	구로	이정택	김한숙	이인호	박귀국	윤남순	권찰
	신도림	이정택	홍현희	이인호	김재윤		
04	신정1	김수연	염미숙	이근호	박경희	최현정	권찰
	신정2	김수연	이은옥	이근호	최영준	김영미	
	고척	김수연	순순자	이근호	이성옥		권찰
	오류	김수연	권필순	이근호	박병희		
05	개봉2	김수연	김영연	이근호	이형자		권찰
	가산	김영환	양명자	송수일	전숙영	강숙희	
	독산	김영환	김자금	송수일	김자금		권찰
	시흥1	김영환	이인숙	송수일	이준영	정용애	
	시흥2	김영환	김영숙	송수일	손진례		권찰
	하인1	김영환	고진순	송수일	고진순	김경자	
	하인2	김영환	전복실	송수일	김혜정		권찰
	개봉1	박종욱	이경애	남명진	송해숙		
	계성산1	박종욱	이경효	남명진	강복희	노미태	권찰
	계성산2	박종욱	강정일	남명진	최옥숙		
	광명	박종욱	문영남	남명진	정혜원		권찰

15 교구

교구장: 노영한 지도: 이경준 부지도: 김정희 남간사: 김기태 여간사: 김부영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흑석1	한호철	안은희	남용철	생기동		권찰
	흑석2	한호철	김정숙	남용철	이명진		
	상도1	한호철	아수덕	남용철	김동순		권찰
	상도2	한호철	전순옥	남용철	양명애	황명자	
	노랑진	한호철	조순림	남용철	박부영		권찰
	신대방1	강석화	전경자	김홍렬	김우자	박선영	
	신대방2	강석화	표복심	김홍렬	양영숙	이상아	권찰
	남현	강석화	김진자	김홍렬	김명은		
	사당1	강석화	고춘대	김홍렬	이용주	신화숙	권찰
	사당2	강석화	김옥남	김홍렬	김연향		
03	사당3	김태식	김영란	최홍심	김병화	서삼옥	권찰
	사당4	김태식	나정순	최홍심	채임숙	최명수	
	사당5	김태식	서경자	최홍심	김우자	최재순	권찰
	사당6	김태식	조영숙	최홍심	생지현	강진춘	
	관악현대	김태식	윤순심	최홍심	김태숙	권수민	권찰
	봉천1	김종춘	신숙재	함경무	김경희	이정숙	
	봉천2	김종춘	안태숙	함경무	최영순	최영순	권찰
	봉천3	김종춘	최한자	함경무	김형미	김영옥	
	봉천동아	김종춘	임신영	함경무	서혜경		권찰
	봉천드림	김종춘	황유남	함경무	김학식	김영숙	
05	봉천4	조성훈	조춘자	김종수	이정화	노광희	권찰
	봉천5	조성훈	황탁자	김종수	오형식		
	봉천6	조성훈	전정희	김종수	박귀자		권찰
	봉천7	조성훈	이남구	김종수	박남진	이수애	
	봉천8	조성훈	김종열	김종수	이정순	김동주	권찰
	신림1	신중식	김옥순	유승렬	노현태		
	신림2	신중식	김준자	유승렬	박일래		권찰
	신림3	신중식	박광자	유승렬	김영실	박종숙	
	신림4	신중식	박민래	유승렬	이인숙		권찰
	신림5	신중식	김향자	유승렬	김경복	김효분	
	신림6	신중식	김남식	유승렬	오영자	한성수	권찰

16 교구

교구장: 임무현 지도: 정충신 부지도: 전은희 남간사: 이기숙 여간사: 현경남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과천1	김성수	조창순	임우도	홍성희		권찰
	과천2	김성수	조창순	임우도	박혜순	권영민	
	과천3	김성수	김준순	임우도	김영숙		권찰
	관양	현준봉	김경애	구창희	김경애		
02	미산	현준봉	이정자	구창희	김미숙		권찰
	호계	현준봉	정정자	구창희	류향란	박귀원	
	안양1	현준봉	김운심	구창희	임은미	김혜진	권찰
	안양2	현준봉	김운심	구창희	김종녀	임미희	
03	평촌1	이상범	이정자	김병권	김성자		권찰
	평촌2	이상범	윤인순	김병권	박홍란	최영진	
	평촌3	이상범	김명자	김병권	유기진		권찰
	평촌4	이상범	김명자	김병권	유기진		
04	평촌5	홍원석	이인숙	김부수	이인숙		권찰
	평촌6	홍원석	한동열	김부수	강수연		
	인덕원	홍원석	현경남	김부수	석은영		권찰
	포일1	홍원석	허연옥	김부수	남상인		
	포일2	홍원석	김숙자	김부수	손인순		권찰
	신본1	윤상철	변금순	김부수	장민희		
	신본2	윤상철	변금순	김부수	장혜남		권찰
	신본3	윤상철	윤정미	김부수	양미정	박영미	
	신본4	윤상철	최계순	김부수	유정선		권찰
	신본5	윤상철	조춘수	김부수	한금애		
	신본6	윤상철	양숙자	김부수	이정연	장인실	권찰
06	수원1	윤명범	정길래	김강호	김동화		
	수원2	윤명범	유금순	김강호	김강호		권찰
	수원3	윤명범	김정순	김강호	조순혜		
	수원4	윤명범	한숙경	김강호	김연단		권찰
	한일	윤명범	한숙경	김강호	심인순		
	평산1	윤명범	박남분	김영환	임흥숙		권찰
	평산2	윤명범	박남분	김영환	임흥숙	홍화숙	
	천안	윤명범	김주분	이상범	이형숙		권찰
	안산1	양병진	최정자	김재호	최정자	고옥순	
	안산2	양병진	최정자	김재호	김숙희		권찰
	안산3	양병진	전태숙	정승진	백은실	김춘자	
	안산4	양병진	한경화	정승진	한순애		권찰
	안산5	양병진	한경화	정승진	이미숙	박은자	

17 교구

교구장: 윤석민 지도: 임현덕 부지도: 김정자 남간사: 박규연 여간사: 최양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태평	현승조	김경희	최정자	최정자		권찰
	신흥주공	현승조	정은숙	김동안	김종남		
	신흥	현승조	조주옥	김동안	박현숙		권찰
	은평	현승조	정숙영	김동안	고옥영		
	성남	현승조	유기순	김동안	임정순		권찰
02	성하대원	유재훈	전명화	박규연	이만순		
	장미	유재훈	김지순	박규연	최양숙		권찰
	경남	유재훈	최낙희	박규연	강우희	조인옥	
	매화	유재훈	정은애	박규연	정은혜	한경분	권찰
03	이매1	이호일	장진자	이창우	최경숙		
	이매2	이호일	김연자	이창우	유영희		권찰
	서현	이호일	박진래	이창우	봉경숙	오인숙	
04	아름1	한만혁	김정원	유현동	박재경		권찰
	아름2	한만혁	차창숙	유현동	김영순		
	아름3	한만혁	김현수	유현동	이순자		권찰
	효자	송영준	오수옥	김재홍	김순자	예은경	
	장안	송영준	최태희	박희원	이옥순		권찰
	새빛	송영준	이가옥	박희원	송영복	신순희	
	수내	송영준	최영희	박희원	서정애	강인자	권찰
06	양지	김연근	신진숙	김재홍	현명희	박상훈	
	장도	김연근	오천자	김재홍	송영아		권찰
	장자1	김연근	안숙자	김재홍	박철순	김순이	
	장자2	김연근	이정숙	김재홍	김재홍	최효삼	권찰
	장자3	김연근	배은경	김재홍	이연숙	신서운	
	철출	문경안	박기영	장재순	이영자		권찰
	까지	문경안	한영덕	장재순	안은혜		
	하인	문경안	한영덕	장재순	김영남	명신덕	권찰
	구미	문경안	지순애	장재순	조정숙	장보윤	
	무지개	문경안	김숙자	장재순	김영희		권찰

2005년 일꾼 명단

18 교구

교구장: 김철형 지도: 하중철 부지도: 김연식 남간사: 허형철 여간사: 신옥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구성1	장부조	방소애	박민호	장혜진	김종만	
	구성2	장부조	전경금	박민호	김진미		
	구성3	장부조	이병자	박민호	박경애		
	구성4	장부조	서화자	박민호	양순자		
	구성5	장부조	최영자	박민호	이연희		
	구성6	장부조	강정희	박민호	전명식		
02	신갈1	김홍기	왕인숙	허형철	오계순	김종만	
	신갈2	김홍기	이순일	허형철	전유강		
	상갈	김홍기	김정숙	허형철	박숙경		
	구갈	김홍기	이학자	허형철	안정숙		
	용인	김홍기	문옥순	허형철	심정숙		
	죽전1	고승균	염옥현	정금수	최영순		
03	죽전2	고승균	최영득	정금수	양순자	김종만	
	죽전3	고승균	장병숙	정금수	최신자		
	죽전4	고승균	남정애	정금수	남명숙		
	수지1	강태영	정경희	임광신	송혜경		
	수지2	강태영	임근애	임광신	남계순		
	동천1	강태영	백정옥	임광신	강민경		
04	동천2	강태영	변옥희	임광신	주은숙	김종만	
	상현1	이용현	고정숙	박재현	홍명희		
	상현2	이용현	김외숙	박재현	이윤정		
	상현3	이용현	유호순	박재현	강영자		
	상현4	이용현	하민자	박재현	박경숙		
	상현5	이인영	이인숙	강두형	김진자		
05	상현6	이인영	유재춘	강두형	박숙엽	김종만	
	상현7	이인영	최 규	강두형	지정민		
	상현8	이인영	허순자	강두형	김유순		
	신봉1	유상태	김홍숙	김재윤	김미자		
	신봉2	유상태	나임자	김재윤	구영희		
	신정	유상태	박순옥	김재윤	박영희		
06	성북1	유상태	김정희	김재윤	한혜정	김종만	
	성북2	유상태	김정순	김재윤	김금숙		

19 교구

교구장: 조종환 지도: 안창덕 부지도: 이수경 이복순 안태순

지역	구역	지역장
1	중고등부	구재환
2	대학부	전계식
3	청년부	송두섭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이실호	회 계 / 김중선
관리부장 / 이실호		
기도원감 / 김종구	동산부장 / 김종구	삼조회장 / 김종구
위 원 / 노광현 이 훈 노영환		
자원봉사부장 / 김영수	차 장 / 박성명 이순자	
주간출현 지도 / 이태복		
교재연구 지도 / 양재용 최종철		
〈교육훈련원〉		
교육1부장 / 김단용	지 도 / 양재용 최종철	
교육2부장 / 황영일		
교육3부장 / 장철환		

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 훈	서 기 / 최무길	회 계 / 이달욱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최윤덕 조종환 장철환		
실행위원 /		
김영환 김종식 김진옥 김향태 박문태 박병태 박재민 박종현 박창근 박장식 배관용 소재철		
송영구 송영문 신동식 안상익 양보민 윤준중 이기욱 이 철 이희우 이재욱 임순배 권재용		
정 준 조영철 조종광 황규규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광남	서 기 / 황영일	회 계 / 최지훈
위 원 / 최무길 이정우 김영달 이실호 신상수		

실행위원 /
전은배 문효식 이강근 변영민 박재명 최준호 류기명 김문섭 최봉환 장철규 유상태

감사위원회

위원장 / 박홍규 서 기 / 안종욱 회 계 / 함철주
위 원 / 안동현 박덕양 김승곤 임창식
경심부감사 / 박홍규
실행위원 / 지규성 김연태 장철환 이인용 최은경 정종철 진원식 조인희

법인운영위원회

법인운영위원장 / 노광현
위 원 / 이병하 남선우 차신득 안종욱 진홍용

충현장학회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이 훈 지 도 / 안창덕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박홍규 조종환 임창식

제직회

회 장 / 당회장 서 기 / 신광철 부서기 / 문효식 김규석 구원섭

집사회

회 장 / 박성명 지 도 / 정현민 부회장 / 조종환

권사회

회 장 / 이순자 지 도 / 장 훈
서 기 / 유호순 회 계 / 전방자

지회	회장	해당교구
1지회	서계식	(1, 6, 10, 13, 14)
2지회	왕유남	(2, 7, 11, 15)
3지회	왕진숙	(3, 5, 8, 9, 12)
4지회	하민자	(4, 16, 17, 18)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현 이 훈 진홍용

충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병하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감 사 / 엄필성 원용철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 훈 김종구 진홍용 최지훈 정정길 신상수
감 사 / 박홍규 진홍필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이 사 장 / 김성관
삼임이사 / 진홍용
이 사 / 김의철 노광현 김광남 임무현 진홍필 김단용 김구형 조종환
감 사 / 이 훈 차신득

“선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CMTC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중에 선교를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선교를 막상 나가려고 공항에 도착하니 긴장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역 첫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지로 출발하였습니다. 사역지에는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지를 읽어 나갈 때 그들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우리의 서툰 언어를 듣고 장난스럽게 접근하였지만, 전도지를 받아 읽어 나갈 때 아이들은 분명 주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역은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소를 비롯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아무 탈 없이 해결하셨습니다. 거주 등록문제도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게 하시고, 통역비가 비싸서 걱정하고 있었지만 운전사의 딸을 통해서서 투루 영이었던 의사소통도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셨고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시키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 나 있진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승기(고등부)

죄인중에 죄인인 나를 사용하신 주님

나는 원래 주일이면 그냥 낚다 가는 튀지 않는 평범한 아이다. 그래서인지 친구도 별로 사귀지 못하였고 사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내가 얼마의 간곡한 권유로 선교를 가게 되었다. 사실 친한 친구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가는 것이라 마음에 꽤 억지되 않았지만 엄마는 너무 단호했다. 2차 연이 면집 때 아무 하였던 말씀이 기억난다.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가지 말라.”

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러 출발일이 되었고, 나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기만 하자는 생각이라 가득했다. 그 때가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보다 10일 동안 어떻게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지내야 할지가 더 고민이었다. 정말 그 때가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선교지 사람들도 다 큰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주시려고 절차 나의 믿음도 자랐다. 처음이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기도 드린 적은.

그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매년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한 마디의 기도도 드린 적이 없었다. 감사의 기도가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기도와 이것 저것 도와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 동안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았지만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번 선교는 내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었다. 선교를 하면서 걱정했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주었다. 공부문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가족에 대한 걱정 등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이 정말 진실이었다.

우리 팀이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한번도 경찰의 지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우리 팀원들의 건강도 지켜주셨다. 현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잘 받아 뿐 아니라 다 읽고 우리의 말도 들어주었다. 다만 그 사람들이든 그리스 정교를 믿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언어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갔더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선교를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보다 더 다가가기 원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부족한 만큼 더 될 것이며 믿는 만큼 더 순종할 것이다. 힘든 만큼 감사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정지연 (고등부)

2004년 2월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온 저는,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웠으며, 그 낯선 곳에서 함께 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2005년에 새롭게 열릴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CMTC수강을 기다렸으나 나의 육체가 곤경해지면서 사안이 내 안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뒤쪽에 앉아서 출석체크만 하고 나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 CMTC에서 저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았고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 선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선교지에 나가 나의 지식과 계획대로 행하게 되며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 당하고 마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말씀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면 당장은 편하고 쉽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그런 잠깐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의 방법을 이해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저는, 강의를 듣고 나서야 제가 했던 오해들이 말씀이 부족한 데서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 특강 - 이 '기쁜 소식'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안내자로서 확신을 줄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은 기쁘지 않았으며 내가 우물쭈물 확신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도 없이 저만 저처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지난 선교의 경험이고 나가려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교만과 게으름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CMTC는 다시 우리의 확신과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어, 기쁜 마음을 품으며 기도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권세를 부려 때론 교만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마다 더욱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중임이 되어야겠습니다.



고현근(대학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저는 교구 팀의 일원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중 조그만 부주의로 출발 5일 전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치료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선교팀의 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출발할 수 없으니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전도사역을 하더라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고 동행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팀원들에게 죄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이틀 전에 퇴원하여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복피를 두르고 선교지의 한터로 향했습니다.

차량으로 사역지로 이동하는데 비포장도로의 사막 지역을 달려야 했기 때문에 차의 평강이 흔들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복피를 두르고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달려가니 허리에 온기가 없어졌지만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물리치로 방법이었습니 다. 이를 동안 사역을 하고 차량을 통한 물리 치료를 받으니 전혀 불편함이 없이 찢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지로 이동하는 늦은 시간에 차량으로 달릴까 한겨워 있었습니다. 저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 배가 되어 임금의 빛과 같으리라” (사 30:26)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팀원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정말 바쁘신가 봅니다. 동기에게 고장 나면, 동행기에는 그것을 수리한 다음 사용하지만 동사일을 계속해야하는 바쁜 동행기에는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여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보잘 것 없고 고장 난 저를 복음의 중인 삼시라고 일단 선교지로 보내 놓고 중간 중간 고치시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현구 (집사, 2교구)

현제 사역 중인 선 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2월 6일(월)-12월 14일(월)	17교구 2지역	윤석민	12월 6일(월)-12월 14일(월)	17교구 추가	유재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나'

총현교회에 온 지도 어린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새가족에게 주어지는 교육관 성경통신을 접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7년 예수교 장로회소속 학교에 근무하며 남편과 함께 돈암동 모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직도 받았지만 진리는 잘 몰랐습니다.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와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신앙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가까이서 본을 보이고 있는 친구 권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때로는 감명을 받았고 그로 인해 갈등도 있었지만 선뜻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할 수 없었고 제 스스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엔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친구 권사의 권유로 태산자 초정 장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멀리멀리 떠났던 연약한 우리 내외를 불러주시고 초청해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날 목사님의 자상한 배려와 교우들의 친절에 복받치는 눈물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저졌으므로 사랑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자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외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70을 훨씬 넘어 아직은 연약하지만 교구와 소망부, 전도회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갱신됨을 의지하고 주일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들 내외와 대학에 다니는 두 손자의 기뻐하는 모습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송은신(소망부, 17교구)

새가족부를 수료하면서

변해가는 우리 집

저는 1년 전 새가족부 선생님이 된 왕 집사님 가족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제 남편을 설득하여 지난 6월 8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13년을 어머니님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부터 집안 사정으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다시는 어머니를 안 보리라는 결심을 하고 전화 연락도 끊고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손주들 밤상만 차려주고 갔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만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50명생을 부처님 알고 사신 분입니다. 지금도 사이가 한 좋은데 교회이기를 꺼냈다가 더 사이가 멀어질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한지만 용기를 내어 "어머님 우리 가족들은 교회에 나가는데 어머니도 같이 나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선뜻 그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님과 함께 새가족부에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새가족부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변화셨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세사가 많은데 그것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교회에 나가시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알고 계시나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추도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수료과정이지보다 조금 늦었지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아이도 소년부에서 성경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와 어머니님의 관계가 융화되지 않고 지난날의 불화한 삶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전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자(새가족부)

2004년 은퇴자 및 근속 표창자

1. 은퇴자

장로	강모승 963, 정윤석 196, 문홍구 761, 조인재 1584 (4명)
인수집사	김용도 83-330, 마도현 81-869, 박필래 89-622, 엄기정 86-366, 전용해 82-223, 표완식 3696 (6명)
권사	강옥련 90-255, 구옥자 89-758, 김복희 84-1167, 김순자 89-628, 김순진 655, 김운주 81-67, 김정순 195, 김현숙 83-20, 김호녀 4856, 문병애 200, 민진식 568, 박영애 85-522, 손홍숙 3283, 안금숙 622, 오춘실 4097, 윤성숙 5061, 이숙화 3567, 이순정 940, 이인자 1815, 김정자 2471, 정영숙 81-257, 조숙 2459, 최순 777, 한경화 2463, 한계식 3425 (25명)

2. 근속 표창자

20년(권사)

강보길 2272, 고금자 5201, 권순애 82-123, 김석석 243, 김순동 1418, 신일순 80-859, 이숙화 3567, 장성혜 236, 최순 777, 한계식 3425 (10명)

3. 은퇴자 및 근속 표창 - 12월 19일(주일) 찬양예배시 분당에서

찬양예배 30분 전에 예행 연습이 있으므로 분당 앞에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와 장기근속이 중복되시는 분은 은퇴자로 시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들

지난해 이 무렵, 소년부 예배실에 들어가 분위기를 살피던 내 모습이 새롭게 떠오른다. 그때 어린 친구들의 해맑고도 힘찬 찬송은 나의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온몸으로 광경이었다. 이토록 순진한 마음을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던 말인가? 나는 내가 소년부 교사로 타당한지를 주님께 여쭈었고, 마음에 확신을 가진 뒤 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소년부 교사 생활이 어느덧 한 해를 맞게 되었다.

주님은 여덟 명의 귀한 아이들을 내게 맡겨 주셨다. 주님을 알게 된 시간이 겨우 여섯 해 밖에 되지 않은 나로서는 우리 반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선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특히 교역자나 직분자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편안하게 한 해를 보냈는지 모른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말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어서 성경 말씀을 비롯해 교회의 체제 등에 대해서도 교사인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투명한 언어를 통해 더 명확하게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몇 가지 음식을 장만해 집에서 가졌던 학교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을 때에는 "선생님" 하며 불러나와서 전도를 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 모른다. 친구의 주제를 위해 "OO구출작전"이라 이름 붙여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전도했던 한 아이가 있었다. 그 때 전도된 아이가 이제야 서서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 한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한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을 보며 어릴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해 더 그들을 한결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밖에 도찬양 부를 때 목이 쓰러져 기도해 달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건네는 아이, 공인지를 꺾은 키타라며 머쓱한 표정으로 그 내용을 내게 내미는 아이, 성경 퀴즈에 나가 받은 상품을 친구들과 기꺼이 나누는 아이...

아이들의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즐겁게 한다. 아직도 분한 공부 시간에 떠들기도 하는 철부지 같은 모습을 벗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연초에 비해 기가 자라고 제법 성숙해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직강사와 이리저리려한 세상일을 떨게도 이 아이들이를 위해 기도하진 못한 것이 가장 죄스럽다. 더불어 소년부의 많은 선생님들과 넉넉히 교제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쉬운 일 중 하나이다. 하찮은 내게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여경(소년부 교사)

교회탐방 45 청년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에 청년부는 집회와 성경공부시간이 많이 바뀌었다. 주일의 뻑뻑했던 일정을 피해 집회는 토요일 오후 5:30~7:00, 그룹별 성경공부(GBS)는 바로 이어서 7:00~8:30로 바뀐 것이다. 또 청년부 연령 대도 19세~34세로 수정되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오늘은 이런 과도기적 시기에 수고한 청년부 임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배와 성경공부시간이 바뀌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박오영(총무) : 예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회와 만나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일에는 봉사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욱 좋네요.

김옥(회장) : 시간이 여유로운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집회를 때는 오전부터 늦게 늦게까지 스케줄이 빽빽해서 참여해서 주일의 심을 누리기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요일에 모여서 비교적 여유도 있고 주일은 주일대로 봉사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더욱 길이 은혜를 누릴 수 있군요.

조상민(부회장) : 바뀌기 전에는 토요일 저녁 늦게 세상 친구와 놀고 나면 주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바뀐 후 약속들이 차츰 정리되고 집회를 통해 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 좋습니다. 토요일 바뀐 후 약속들이 차츰 정리되고 집회를 통해 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청년부 홍보 좀 해주세요.**

박오영 : 청년부는 직장인으로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해주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옥 :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회사생활을 아다다고 집회시간과 GBS시간에 모여면 주일 앞에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전히 다른 곳에서 힘소고 있을 청년부 지체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곤 합니다.

***청년부 임원으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거나 느낀 것이 있으요?**

고지영(총무) :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로 1년 동안 시간에 쫓겼습니다. 연초에도 무척 바빠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의 행사 및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신기하게 시간이 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장용진(회계) : 예전에는 엄마와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임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자신이 최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힘들었고 제게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원을 마칠 즈음에 되

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주희(부회장) : 부회제로 1년 동안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일까? 왜 저런 방법일까?"라는 질문을 늘 던지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최근 청년부 내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포함한 청년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의견을 내놓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조율이 나아가 기도하려고. 돌아보면 임원기간 동안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도록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박선웅(미디어담당) : 예배를 준비하며 빈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나오는 것인지 청년부 소속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 그리스도의 감성인 분량까지 함께 자라 가자구요.

***교회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고지영 : 저의 청년들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들 중 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세화(부회장) :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청년이 나오는 것은, 하지만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일 테지만,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만 했고, 무엇이 옳은가 혼란스러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어찌하던지 결국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부가 참 좋습니다.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보며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정당들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들은 여러 모양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청년부 모든 지체들은 또 다른 모습의 청년부를 소망하고 기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선웅 : '적극적인공약'을 위해 청년부를 향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더없이 기쁜 날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고, 감람한 세상을 밝게 하며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라고 (눅 2:14절)는 말한다. 에드먼드 해밀턴 씨어즈(Edmund Hamilton Sears)가 이 위대한 기쁨을 가사로 썼으며 리처드 윌리스(Richard S. Willis)가 그 가사를 토대로 작곡을 하였다.

1절은 첫 성탄의 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한 밤중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빛을 비추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2절은 옛날 베들레헴의 별만에 울었던 천사들의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리고 있으므로 이 슬픔 많고 요란한 세상에 참 평안을 가져다줄을 찬양한다.

3절은 이 놀라운 천사의 찬양이 이천년 동안 온 땅에 전파되었으며 여전히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지 않음을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노래한다.

4절은 그 천사의 노래는 아직도 울려오고 있으며, 영원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제 다음 주일인 성탄주일입니다. 이 최아 많은 세상에 참된 소망을 가져다주시는 예수님을 힘 있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새·가·득·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95	김주옥	19	장년2부	장항식(12)	2909	이원희	19	청년1부	정영운(8)
2896	이혁진	19	청년2부		2910	안지희	19	중등2부	김철환(11)
2897	김상동	3	장년1부	임승남(3)	2911	손정혜	17	청년1부	고옥영(17)
2898	김진웅	16	장년3부	김갑기(1)	2912	정효진	19	중등2부	
2899	한지혜	2	청년1부	임문포(1)	2913	양금하	12	장년1부	임무득(16)
2900	배윤일	19	청년1부	하발영(15)	2914	박인숙	10	장년2부	박대선(10)
2901	김정순	12	장년1부		2915	김미애	16	예배대	최은경(16)
2902	김민정	19	청년1부	최종철(1)	2916	이정영	3	청년2부	김범상(192)
2903	이선웅	1	장년1부	이경자(7)	2917	란진	19	외선부	윤해관(14)
2904	위슬기	19	청년1부	장유선(19)	2918	김타	19	외선부	석영석(11)
2905	김덕순	15	장년1부		2919	보리다끼리	19	외선부	강원주(19)
2906	김용근	1	장년2부	손우희(18)	2920	다수서	19	외선부	장병준(7)
2907	장보형	19	중등2부	고진순(14)	2921	홍선주	19	청년1부	이창수(1)
2908	이범우	11	장년3부	임정순(8)	2922	조이연	19	내학부	임순복(10)

※ 찬양교회의 한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r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